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곳곳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사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끄러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2년 8월 6일 (토) 제 1884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해체 시대 사역, 원인 파악하여 복음으로 치료한다!

TGC, 조슈아 라이언 버틀러 목사 해체의 근본 원인 4가지와 이에 맞는 복음 치료 계획 소개

해체(deconstruction)는 증상이다. 근본 원인이 아니다. 올바른 진단이 중요한 이유는, 의학적 비유를 사용하자면, 기저 질환이 무엇이나에 따라 치료법도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이어, 교회에 침투한 '해체' 즉 기독교 신앙 깨트리기라는 실제적인 문제를 두고 무단히 씨름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온 조슈아 라이언 버틀러(Joshua Ryan Butler)목사를 소개한다. 그는 아리조

나주 템플에서 사역(Redemption Church, 'The Skeletons in God's Closet' 와 'The Pursuing God'의 저자)하고 있다. 버틀러 목사는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가장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체'의 일반적인 근본 원인 네 가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복음의 치료 계획을 전해준다(4 Causes of Deconstruction).



목회자도 쉼이 필요합니다

처치리터스컴, 샘 라이너(Sam Reiner)목사가 말해주는 목회자에게 "쉼"이 필요한 이유 소개

하나님은 낮잠을 자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낮잠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너무나 많은 목회자가 적절한 휴식 주기를 갖지 않는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은 일과 안식의 본을 정하셨다. 이 모범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신 창조 기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편 62편에서 안식과 구원의 관계를 주목해보자. 시편 62편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하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영문: I am at rest in God alone; my salvation comes from him)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구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신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을 배운다.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안식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을 올바로 가르칠 수 없다(Pastor, Your Church Needs You to Rest and Take a Vacation).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은 쉼이 없다. 1940년대에 평균적인 미국인은 밤에 8시간의 수면을 취하곤 했는데, 오늘날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미만이다. 우리는 지치고 탈진하고, 피곤하고 졸리며, 녹초가 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가장 처음 하게 되는 두 행동은, '알람 시계를 멈추는 것'과 '휴대폰을 보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쉼이 필요하다. 안식을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휴가를 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 (9면으로 계속)



Joshua Ryan Butler
@butlerjosh

Four Causes of Deconstruction:

1. Church Hurt
2. Poor Teaching
3. Desire to Sin
4. Street Cred

Treat the root, not the symptom.
New article up @TGC:

나 함께 애통할 때, 곧 성도들이 예수를 중심에 둔 건강한 관계를 맺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신뢰는 회복된다.

2. 잘못된 가르침

창세기 1장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믿음과 과학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지옥에 대한 대중 풍자만화를 보고 하나님을 복수심에 불타는 사디스트라고 믿게 된 그리스도인도 있다. 이처럼 의심스럽거나 조잡한 가르침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

는데 과연 현명한 길일까?

문제가 잘못된 가르침이라면, 해결책은 좋은 가르침이다. 우리 주변에는 가령 TGC에서 최근에 나온 '신앙을 잃기 전에'(Before You Lose Your Faith)나 비디오 시리즈 '기독교에 관한 Z세대의 질문' 같은 훌륭한 자료가 있고, 지금도 적지 않은 현명한 목회자들이 어려운 질문과 씨름하는 사람들과 함께 참음성 있게 길을 걷고 있다. 좋은 가르침과 좋은 선생이 분명 있다.

(3면으로 계속)



3면 시론 은희곤 목사



4면 푸른초장 한세영 목사



16면 인터뷰 김제이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소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의학적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인.내
- 치아임플란트
- 구강외과 틀니
- 보철치료
- 미용성형치과
- 신경 및 잇몸치료

[성경일독을 돕는 Bible Reading Guide]

2022 전문강사스쿨 신입생 모집요강

◎ 입학자격: 구약/신약 성경방을 수료하신 모든 분 ◎ 제출서류: 입학원서, 성경방 수료증
◎ 소용일정: 2022년 9월-2023년 1월(약 5개월간 주 1회 수업) ◎ 강의방법: ZOOM
◎ 특전: 목회자분들에게 소정의 장학금 지급(모교, 선교사, 사모, 신학생 등)
◎ 사차별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Two Track School Course
LA5기 스쿨은 미주와 아시아를 고려하여 Two Track School Course 동시에 진행하여 동부 시차에 개인 분별도 7pm(현지시간 기준)에, 서부도 7pm(현지시간 기준)에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서부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BST(4pm PST)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박제니 전도사(213-220-6729, Jenny515280@gmail.com)

월드미션대학교, 릴리재단 Lilly Endowment Inc 으로부터 100만불 그랜트 승인

월드미션대학교는 릴리재단에서 주관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 (Pathways for Tomorrow Initiative)에 선정되어 5년간 디지털시대 영성형성(Spiritual Formation)에 관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2022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신설 프로그램

- 상담코칭과 영성형성 박사
DMin in Counseling and Coaching with Spiritual Formation
- 글로벌리더십 - 코칭 전공 석사
MA in Global Leadership, Coaching Concentration
- 기독교사역학 - 찬양과 예배 전공 학사
BA in Christian Ministries, Praise and Worship Concentration

전공과정

- 준학사과정 | 기독교사역학, 기독교상담학
- 학사과정 | 기독교사역학(찬양과 예배 전공), 기독교상담학, 사회복지학, 간호학(RN to BSN)
- 석사과정 | 목회학, 신학, 상담심리학, 음악학, 찬양과 예배, 글로벌리더십(복지선교, 코칭 전공)
- 박사과정 | 목회학, 교회음악학, 상담코칭과 영성형성
- 수료과정 | 유아교육, 가정상담, 비영리단체 사역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 www.wmu.edu | Tel : (213)388-1000 | E-mail : admissions@wmu.edu



발행인 칼럼

물이라고 다 같은 물이 아니다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꼭 십 년 전, 2012년 한국 여수에서 세계박람회(엑스포)가 있었다. 한국에서 사역하던 때라 시간을 내어 그곳에 가보았다. 그때 박람회의 화두(話題)는 '물'이었다. 박람회의 주제도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The Living Ocean and Coast)'이었다. 인류는 오랫동안 '땅'을 중요시 여겼고, 근대에는 '기름' 때문에 전쟁을 하였고, 요즘에는 '우주'를 놓고 각축을 벌인다. 그런데 그 박람회에서는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라고 외쳤고 그곳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을 자아냈다. 박람회를 돌아보

면서 다른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지만 삼면이 바다라는 놀라운 지정학적 축복을 새삼 깨닫기도 하였다. 이에 앞서 2007년에는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다. 갑자기 생명의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되었다. 태안 앞바다 검은 기름으로 뒤덮였을 때 모든 국민이 나서서 모래사장하고 해안의 바위틈에 스며든 기름을 닦아내면서 웬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도 함께 닦아내었다.

지난달 17일 인도에서 어이없는 일이 있었다. 인도 퍼자부주(州) 총리가 지역의 칼리 베인 하천을 찾아 물이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유리잔에 물을 떠서 발컹발컹 마셨다가 극심한 복통이 나서 병원으로 실려 갔다는 것이다. 그가 그날 마신 물은 오염된 물일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물은 사람의 생존에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 물이나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니다. 오염된 물은 사람을 병들게도 하고 죽게도 한다. 사람에게 필요한 물에는 깨끗함이 관건(關鍵)이다. 그것을 몸소 보아본 적이 있는 인도 정치가의 그날 행동은 어리석게 보이지 않았고 애절하게 보였다.

모든 인간은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고 또 마실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으니 이 일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절실하고 민간 차원의 역할도 요청된다. 물의 문제는 잠시의 해결책만으로 안 된다. 다소 오래된 방법이지만 물이 부족한 나라, 오염된 식수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우물을 파주고 관리까지 해 주는 사업, 빗물을 받아 잘 저장하고 공급하는 탱크 설치 등은 정부 차원 또는 민간 차원에서 아주 적절한 일이다. 지금은 더욱 발전된 방법들을 병행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다 근원적이고 영구적인 물 문제 해결 방법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물'에 대한 관심을 누구든 접지 말아야 한다.

교회는 더욱 그렇다. 교회는 '물'의 문제에 더 깊은 관심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류에게 물리적인 물은 하루도 떼어 놓을 수 없지만 또 다른 물이 정말 필요하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 4:13-14)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 나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이 세상에 즐기치게 공급해야 한다. 세상의 물만으로는 만족하려는 사람과 영적으로 오염된 물을 마시기에 자기 영혼이 상하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교회는 깨끗하고 정결한 생수를 마시게 해야 한다. 교회에서 나가 세상 속에서 변질된다면 필시 강단에서 흐르는 오염된 물을 마셨음이고 교회에서 나가 세상에서 변화된 삶을 산다면 필시 강단에서 흐르는 정결한 물을 마셨음이다. 물이라고 다 같은 물이 아니다

미국 총기 규제,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나(2)

BBC, 바이든 행정부 총기 규제 법안 서명으로 총기 폭력 사건 대처에 한 걸음 나아가

돌격 소총 금지

미국에서 인기 있는 AR-15와 AK-47 또한 일반적으로 '돌격 소총'으로 알려진 반자동 소총류이다.

권총의 탄환보다 더 빠르고 큰 직경의 탄환을 발사할 수 있는 돌격 소총은 살상력이 훨씬 뛰어나며, 현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인명 피해가 컸던 총기 난사 사건 등에서도 이용됐다.

현 상황은?

지난 1994년 10월 이상의 탄환을 장전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와 탄창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 도입됐으나, 10년 후인 2004년 9월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는 이 법이 만료하게 되었다.

이 10년이 전반적인 범죄 활동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관련 연방법이 부재하자 7개 주와 하이랜드파크 등 몇몇 도시는 특정 종류의 고출력 반자동 소총을 금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에서 개인이 소유한 돌격 소총은 약 2000만 정 규모로 추정된다.

그 다음은?

공격용 무기를 몇몇 법안은 법률적 문제에 직면한 상태다. 하급 법원이 지지한 경우이더라도 최근 대법원은 이를 재고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 공격용 무기 금지법은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것도 시간문제일 수도 있다.

총기 소지 및 보관 규정 강화

비록 총을 소유하기 위해선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연방법은 없지만, 몇몇 주에서는 총기 소지자에 대한 일부 의무적인 훈련 과정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몇몇 주에서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보이지 않게 총을 소지하는 등) 무기를 숨겨서 들고 다니기 위해선 관련 강의를 듣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총을 잠



금장치가 채워진 곳에 보관하지 않으면 총기를 도난당하거나, 어린이가 사용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고 한다.

현 상황은?

앞서 6월 말 미 대법원은 자택 밖에서 총기를 휴대할 때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00여 년 전 마련된 뉴욕주의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특정 종류의 총기에 대해 허가받도록 명시한 다른 주의 주법 또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총기를 반드시 잠금장치가 채워진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된 주는 13곳이다. 또한 어린이나 유죄판결을 받은 중범죄자 손에 총기가 넘어갈 경우 총기 소유자를 처벌하는 주도 있다.

그 다음은?

방아쇠 잠금장치, 총기 보관 요건, 의무 훈련 수료 등은 책임감 있는 총기 소유를 장려하기 위해 제안된 방안이다.

총기 소유를 현행상 권리로 인정된 대법원의 판결을 고려할 때, 하급 법원은 이러한 방안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할 것이다.

교직원 무장

총기 규제 반대자들은 교사가 총기 사용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018년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서 자식을 잃은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는 공화당원들에 따르면 정부 청사 등 잠재적으로 테러 공격의 목표물이 될 수 있는 건물은 이미 다 요새화되었는데, 왜 학교는 그렇지 않냐는 것이다.

학교를 포함한 상점, 극장, 교회 및 여러 공공장소에서 무장한 경비원을 배치하고, 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여러 보안 조치를 기본적으로 시행하자는 주장이다.

현 상황은?

미국에선 이미 전국적으로 많은 학교에 무장 경비원이 배치돼 있다. 관할 경찰대서 소속된 경우가 많으며, "학교 전담 경찰관(SRO)"으로 불린다.

그러나 텍사스주 유밸디의 롱 초등학교에도 무장 경비원이 있었으나, 경찰은 이 총격범과 맞서는 데 한 시간 넘게 소요됐다.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고등학교에 주둔하고 있던 경찰관도 총격범에 맞서지 못했고, 이후 아동 방임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새로운 총기 법안에 따라 학교의 보안 강화를 위해 3억달러가 지원되며, 교내 정신 건강 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원금도 마련됐다.

그 다음은?

학교의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학교가 공학처럼 총기를 들고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 돼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다.

그러나 우선 미국의 상업 공항은 약 500곳이지만 전국적으로 학교 수는 약 13만에 이른다.

결정적으로 인출입을 제한하기 위해선 건물의 진입점을 한 곳만 마련해야 하는데, 특성상 수백 명이 수시로 드나드는 학교 건물이나, 캠퍼스 내 건물이 여러 곳인 학교에서는 이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인건비 등 이러한 보안 조치를 마련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3억달러는 물론 정부가 예산을 전례 없는 규모로 쏟아부었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현 상황은?

한 아버지가 이러한 '교사 무장론'을 강력하게 외치던 인물이기도 했다.

일부 총기 옹호자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총기 소지 또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부분 외곽지역에 사는 나이 든 총기 소유자들은 자신이 어릴 적 학교에 총을 들고 와 점심에 사냥하던 추억을 즐겁게 회상하곤 한다.

그 다음은?

미국 사회에선 교내 총기 난사 사건이 점점 더 빈번해지면서 여러 지역 당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교사들은 총기 무장에 거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텍사스주에선 공립학교 교사 32만 명 중 약 250명만이 주정부의 무장한 "학교 보안관"으로 지원했다.

학교의 요새화

많은 보수적인 총기 소유자들은 학교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학교를 쉬운 목표물에서 요새처럼 강하고 어려운 목표물로 바꿔놓자는 것이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김재상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KAPC Reformed Presbyterian University & Seminary
2022 학년도 가을학기 학생모집
1978년에 설립되어 현재 1300여명의 목사 회원과 30개의 노회, 그리고 650여개의 지교회를 산하에 둔 미주 지역 최대의 한인 교단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직영 신학교인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2 학년도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과정: 1. 신학사 과정(B.B.S.): 고졸자, 2. 기독교교육학사 과정(M.C.E.): 대졸자, 3. 목회학사 과정(M.Div): 대졸자, 4. 편집생 과정: 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본 교단에 가입하기 위하여 편집하는 목회후보자, 5. 편목 과정: 타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본 교단에 가입하기 원하는 목회자
특전: 1. 본교의 M.Div과정을 졸업한 학생에게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서 시행하는 목사고시에 응시하여 안수받을 자격이 주어짐, 2. 각종 장학금(성적, 근로, 총회 및 이사 장학금)
2022학년도 가을학기
기간: 2022년 8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1) 개강 예매: ○ 일시: 2022년 8월 29일 (월) 오후 7시 (서부시간), ○ 장소: Zoom
(2) 개설 과목:
Date Course Name Prof
Monday (월) Early & Medieval Church History 오덕교교수 Ph. D
Tuesday (화) Book of Psalms (시편) 김동진교수 Th.D
Wednesday (수) Constitution & Westminster Confession (헌법 및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김선중교수 Ph.D
*문의처: 김동진 학감 (626-675-8010)
박사 과정 안내
California BPPE 의 인가 (# 30693)와 California Education Code Section 94874(e)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이 박사 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 목회학박사 과정 (Doctor of Ministry)
○ 입학 자격: 목회학사 (M. Div) 학위를 소지한 목회자 및 선교사
○ 졸업 학점: 36 학점 (논문 12 학점 포함)
2. 신학박사 과정 (Doctor of Theology)
○ 입학 자격: 목회학사 (M. Div), 혹은 신학사 (Th. M) 학위 소유자
○ 전공 분야: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등에서 택일(입학시)
○ 졸업 학점: 48학점 (논문 12 학점 포함)
○ 학비: 학점당 150 불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직영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총장: 이정현박사 | 이사장: 양수철박사
154 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 310-749- 0577, 626-675- 8010

해체 시대 사역...

(1면에서 계속)

나쁜 가르침을 좋은 가르침으로 대체한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다. 나는 산상수훈(마태복음 5-7장)에 나오는 예수님 특유의 후렴구를 좋아한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좋은 가르침을 재구성하기 위해 예수님은 먼저 나쁜 가르침을 해체하신다. 해체가 전부 다 나쁜 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는 구약을 비판하는 말씀이라고 잘못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히브리 성경을 사랑하신다. 그는 "기록되어 있다" "잊지 못했다" "당신은 이렇게 들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가 되어야 한다. 나는 이미 지옥, 심판, 성전, 희생, 진노, 속죄에 관한 책을 썼고, 지금은 성과 젠더에 관한 책을 쓰고 있다. 나는 종종 기독교 신앙의 대중적인 풍자만화를 마주하는데, 최대한 그것을 건강하고 성경적이며 역사적 이해로 대체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오늘날의 해체는 나쁜 가르침이 결론을 맺도록 한다. 존재하는 유일한 실재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놓치게 만든다. 그러한 "치료법"은 치료하고자 하는 환자를 죽이고, 그들을 진정한 약,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이와 반대로, 복음의 치료 계획은 단순히 나쁜 가르침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좋은 가르침으로 대체한다.

우리는 좋은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의 후렴은, "당신은 이렇게 들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가 되어야 한다. 나는 이미 지옥, 심판, 성전, 희생, 진노, 속죄에 관한 책을 썼고, 지금은 성과 젠더에 관한 책을 쓰고 있다. 나는 종종 기독교 신앙의 대중적인 풍자만화를 마주하는데, 최대한 그것을 건강하고 성경적이며 역사적 이해로 대체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죄를 정당화하려는 욕망이 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역에 종사하는 많은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더니, 급격한 해체의 길에 들어서기도 한다. 이렇게 진행되는 많은 경우에 해체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불륜이 있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곤 한다.

나는 여자 친구 또는 남자 친구와 섹스를 시작하는 동시에 해체 과정에 들어가는 학생들도 넘치는 대학 도시에서 사역한다. 이런 경우 해체는 아주 편리한 타이밍에 맞춰 일어난다. 또는 사람에 따라서 (마약, 알코올, 포르노) 중독이 주는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 해체하기도 한다.

흔히 해체가 정직하게 씌름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제시된다. ("왜 하나님이 나타나지

하는 욕망이라면, 해결책은 고백과 회개이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눈을 열어 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신다." (행 26:18)

해체는 약이 아니라 독이다. 그것은 당신을 죽이는 죄에서 구원하지 않기는커녕, 죄를 더 짓도록 부추긴다. 해체는 진정한 동기를 정면으로 직면하지 않도록 주의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체면을 유지시켜주고, 하나님을 떠나는 당신에게 뭔가 대단한 이유라도 있는 양 보이도록 한다. "문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해체는 불장난이다. 그러나 은혜는 실재이며 치유를 약속한다. 야고보 사도의 조언을 들어보자. "죄인들이여, 손을

며, 게다가 돈도 벌어야 한다. 이런 경향은 롭 벨(Rob Bell, 만인구원론을 주창한다) 목사로 하여금 오프라 쇼에 나가게 하고, 글렌 도일(Glennon Doyle, 동성에 킴이아웃을 했다)의 책이 더 팔리게 만들며, 코미디 듀오 리트앤링크(Rhett & Link)로 하여금 나초앤리브레(Nacho Libre)와 해리 포터를 그들의 인기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호스팅 하게 한다.

#exvangelical(탈복음주의) 해쉬태그를 붙이는 팟캐스터와 틱톡 스타의 물결이 뒤따르고 있으며, 적지 않은 관련 비즈니스가 그런 그들을 환영하고 응원한다. 섹스와 젠더에 대한 "오래된" 견해, 말하는 뱀과 식용 금지된 조개류 이야기가 든 "불분명한"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 같은 "공격적인" 교리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영향력을 가지는 데에 더 유리하다.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안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길거리 신뢰 이외의 다른 동기도 얼마든지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 나는 강력한 당근의 역할을 하는 사회적 압력이 단지 유령인에 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문화적 적대감은 현실이다. (내 고향 포틀랜드 같은) 진보적인 도시 중심에서든, 지금 내가 사는 대학 도시에서든, 그리스도인은 확실히 멋진 친구가 아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밥 먹는 어색함을 이겨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사회적 압력을 느끼고 있으며, 압력 분출의 방법은 인스타그램에 게시물 올리는 것이다.

여기서 "치료"는 당신이 갈망하는 이미지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복음은 영향력과 명성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죽이라고 명령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요 12:43)보다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신다. 사랑과 인정을 바라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러나 진실하신 하나님보다 변덕스러운 친구들에게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요한 사도는 경고한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께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요일 2:15).

(9면으로 계속)



세상은 '이런 교회' 를 보고 싶어라! (1)



은희곤 목사 (평화드림포럼 대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란 프랑스어로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부와 권력과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가야 한다는 의미로, 사회 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단어입니다. 반대로 사회 지도층들이 이를 실천하지 않았을 때 비판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유래는 이렇게입니다. 백년전쟁(1337-1453) 당시 영국군에게 점령당할 위기에 처한 프랑스의 도시 칼레는 거센 공격

을 막아내고자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국 항복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곧이어 영국왕 '에드워드 3세' 앞에 자비를 구하는 칼레시의 항복 사절단이 도착합니다. '에드워드 3세'는 항복을 수용하는 한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좋다. 모든 칼레 시민들의 생명을 보장한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동안의 반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칼레 시민 전체를 대신해 처형당할 대표자 6명을 선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칼레의 시민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던 그 순간,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칼레시의 가장 부유했던 '유스타슈 생 피에르'였습니다. 그의 희생정신에 감격한 고위 관료와 부유층 인사들이 함께 했는데 모두 7명이었습니다. 피에르는 이튿날 가장 나중에 오는 1명이 남고 나머지 6명이 영국군 진영으로 가지고 제안합니다. 날이 밝은 이튿날, 오직 피에르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의아하게 여긴 6명이 피에르의 집을 찾았지만, 그는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였습니다. 7명 모두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끈질기게 그 1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그리고 누가 살 것인가를 놓고 설전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리라 생각한 피에르가 스스로 먼저 그 1명이 되어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이에 남은 6명은 담담하게 영국 왕 앞으로 나갔고 교수대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영국의 왕비 '필리파 드 에노'가 처형을 만류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왕비는 왕에게,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어 자신의 뱃속 아기를 축복해 달라고 왕에게 간청해 결국 그들은 모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00여년 후 칼레시는 용감했던 시민 7명의 모습을 '오귀스트 로댕'에게 청동상을 의뢰해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7명처럼 사회 고위층이 져야 할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유래 되었다고 합니다.」 (피운 글) 세상은 성도들과 교회에게도 이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대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빛인 교회와 성도'를 보고 싶어합니다. 세상은 '우리와 교회를 통해' 예수를 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교회의 빛이 되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세상의 빛이 되거라'(마 5:14)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어느덧 '교회의 빛인 어항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성도들을 그 안에 가둬두고 싶어하고, 세상으로 파송을 싫어하고, 말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그리 다투어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신앙따로 삶따로 "따로 교인"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성도들이 오직 교회에서 참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산교회에서, 여선교회에서, 성가대에서, 찬양팀에서, 봉사부에서 등등 정말 교회를 잘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갖고 헌신하도록 훈련시킵시다. 이것이 나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예배를 돕는 아름다운 음성의 솔리스트가 주일은 물론이고 주간에도 거의 매일을 새벽 오전 오후 저녁등 모든 교회집회와 심방과 봉사에 참여한다면 보편적으로 참 훌륭한 성도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과연 집에서 사랑스러운 아내, 좋은 엄마를 기다리는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 교회를 섬기는 일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집에서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아들 며느리, 좋은 딸 사위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 아바 엄마, 그리스도인 직장인과 상사,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교회의 본질적 구조'를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의 구조는 '모이고 흩어지는 것' (together and disperse, ecclesia et diaspora)입니다. '모여서' (together, ecclesia)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kerigma), 배운 말씀을 더 공부하고(didache), 세상에 나가서 완파를 당해도 흔들리지 않도록 외롭지 않게 함께 모여 서로가 힘이 되는 성도의 교제 나누는 친교(koinonia), (9면으로 계속)



않고 응답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체하는 사람을 종종 신뢰하기에는 너무도 멀리 있거나 도무지 믿기 어려운 하나님과 진지하게 씨름하는 영웅으로 그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가면은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을 가린다. "마음이 원하는 것은 생각이 정당화한다"는 옛말이 맞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그분을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허락하셨다. 사실 하나님을 심판한다고 생각할 때, 정작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인데 말이다. 이런 사실은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하나님은 부패한 마음이 갈망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우리가, 그 마음을 합리화하는 타락한 생각에 빠지도록 그냥 놔두시기도 한다.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는 또한 해체하려는 사람들에게 희망에 찬 약속을 준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약 4:7-8).

4. 길거리 신뢰

의심은 유행을 따라가는 방식이다. 우리 시대를 휩쓰는 문화적 기풍에 어울리고자 하는 열망은 강하다. 그렇기에 탈회심(deconversion) 이야기가 넘치고 넘치지 만 다 뻥하고 진부한 대본 읽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다. 낱아빠진 샤투어로 점철된 탈회심 이야기는 현대 사회 규범에 대한 순응을 드러낼 뿐이다.

연예인들이 이런 경향을 주도하고 있다. 영향력도 가져야 하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

3. 죄를 지으려는 욕망

문제의 원인이 죄를 짓고자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8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2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8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with membership information including '회원사' (Member Churches) and '후원' (Sponsors) with contact details for various Christian media organizations.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회장 이영선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훈련이 숙련을 낳는다

2009년 1월 15일, 뉴욕 라과디아 공항을 출발한 US에어웨이즈(Airways)1549편이 이륙한지 1분후에 새 때에 부딪쳐서 엔진 두 개가 다 멈추고, 한 동안 무중력 상태로 비행하였습니다.

비행기가 다시 공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장 체술리 술렌버거는 허드슨 강에 불시착

을 시도하였고 기적적으로 승객과 승무원 155명 전원이 구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허드슨 강의 기적'은 거듭된 훈련의 결과입니다. 기장 술렌버거는 기적의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훈련받은 대로 했을 뿐입니다."

비행기가 강물에 불시착할

때는 두 날개가 동시에 수면에 닿지 않으면 비행기가 뒤집히거나 부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우연히 아니라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우연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세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파스퇴르도 "우연은 준비된 자에만 미소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훈련이 숙련을 낳습니다. 고육한흠 목사는 "진도 순종게도 훈련받지 않으면 똥개"라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은 "나는 열 사람 몫의 일을 하는 대신에 열 사람의 일군을 키우겠습니다."라고 했고,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21세기 문맹자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학습하고 교정하고 재 학습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거듭된 훈련이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스는 "세상은 더 좋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은 준비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끊임없는 훈련이 완전함을 낳습니다. 영적인 거장인 사도 바울도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딤후 2:15) "올게 분별하라"는 말은 건축 용어로서 '바르게 베다, 똑바로 길을 내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르게 나무를 베고, 똑바로 길을 내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교회는 '제자훈련'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제자훈련은 여러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단순한 성경공부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기술이나 방법을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영적인 엘리트 부대를 만들거나 교역자의 추종자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제자훈련은 예수님을 배우고, 순종하고 따르는 훈련입니다. 그러나 '훈련'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의 목적은 예수를 따르는 작은 예수가 되는 '제자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마음을 배우고 따르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목적이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제자훈련은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마음을 알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가르침

에 호호하는 예수의 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훈련을 멈추지 않았습니. 그 이유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를 재생산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거듭된 훈련이 숙련을 낳습니다. 훈련을 통해 숙련되면 "나는 단지 훈련받은 대로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한 술렌버거처럼 어떤 삶의 위기도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푸/른/초/장

한세영 목사

(메시아장도교회)



고대 그리스에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육상선수가 죽을 고생 끝에 2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군중은 우승자에게만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승자를 위한 축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를 비롯한 다른 선수들은 들리리를 서야 했는데, 그가 집에 돌아가는 순간까지도 승자의 이름 밖에는 들리지 않았습니. 며칠 후, 시내 한복판에 우승자를 기리는 거대한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2등을 한 그는 하루하루 그 동상을 보며 자신이 패자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시기와 질투가 그의 영혼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잠을 못자고, 몰래 밖으로 나가 승자의 동상이 세워진 맨 아랫부분을, 기초부터 조금씩 끌로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가 여느 때와 같이 석상을 파낼 때, 그만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육중한 우승자의 동상이 큰소리를 내고 쓰러지며 그 사람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죽였을까요? 포시스는, "고장난 세상이 말썽이 아니라, 그 안에 난파당한 영혼이 말썽이다"라고 했는데, 세상이 그를 죽였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는 동상이 무너진 순간에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조금씩 스스로를 죽여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루하루 생각이 꼬리를 물 때마다, 그를 죽인 것은 결국 질투의 무게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영혼의 치명적인 독이 되어 그를 죽였던 것입니다. 잠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못 지켜도, 마음만은 지켜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얻은 명예를 잃는다고, 물질을 잃는다고, 관계가 끊어진다고 생명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잃고, 내 삶을 잃고, 내가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무엇 보다도 그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기 위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렘 17:14)

먼저, 그는 그의 모든 기도의 근거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라는 고백을 하는데, '주님이 나의 찬송'이란 말에서 '주님'과 '나'라는 표현은 서로 간의 친밀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로 하여금 고통 중에도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게 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기도가 확신에 차 있으면서, 이미 그의 영혼이 회복되었다는 것도 알아챌 수 있는데, 이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과 영혼을 지키고자 한다면 늘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불안하다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친밀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좋아하는 일도 함께 하고, 또 어려움이 나고 충성이 있을 때 함께 나누는 일과 같은 일들을 하죠? 그렇게 삶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주님과 함께 삶을 나누고 있는가?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드릴 때나, 어렵고 힘들 때만 주님과 친밀하려하면 안 되는 것이죠? 찬송가 394장은,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려준네 온 천지

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라고 찬양하는데, 우리는 진정한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의 참된 친구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는 주님과 함께하기보다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오직 예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가 이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에 그는 부르짖음을 통해 그의 상처 받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 받길 원했는데, 가능할까요? 그러나 시편 34편 18절은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와 마음은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사람은 마음은 상한 자를 가까이 하길 꺼려하고 피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이다"고 했습니다. '사모하는'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좌카크'로, 맹수같이 뛰어들고 찾아 헤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영혼의 만족을 위해 간절함과

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영혼이 힘을 얻으며,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또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고 부르짖는데, 앞서 살펴보았던 '고치소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치의 의미를 지닌 '라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내면의 치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원하소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삭'이라는 단어로, 외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는 '고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두 가지의 기도를 통해 '내면의 불완전함과 외적 고난으로 부터의 해방'을 탄원하며, '완전한 자아의 회복'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를 내면의 고통과 외적인 고난에서 고치시고 구원해 주실 이

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 자신만이 아닌,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얻으리이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전파하는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더욱 영혼이 강건케 되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복음전파의 현장은 영적 전쟁의 일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영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에 힘을 얻길 원하신다면, 복음을 들고 일어나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력을 주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카운티 Fire Marshall이 나와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주일예배 인원을 카운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가운을 입은 채로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느냐?'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자 그들이 그냥 가버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위해서는 강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한다면 강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험한 세상을 살아갈지만, 주님만 믿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는 팬데믹을 맞아 연약해진 우리 심령에 큰 힘을 불어넣을 만한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임하는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짖음으로 일어났던 예레미야와 같이 이 힘든 기간에도 늘 찬양과 기도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복음을 불고 담대히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 강건케 됨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팬데믹과 불경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한 영혼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믿습니다.

syhan91@hotmail.com

“강건한 영혼을 위하여”

예레미야 17:14

갈급함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은 그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며 좋은 것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는 종종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찌하여 낙심하며 여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시 42:5)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내가 있지 않냐? 내게 소망을 두라!' 그러면 더 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직 그 길 밖에는 살 길이 없음을 믿고 부르짖습니다. 제가 처음 저희 교회에 부임해서도 몇 년 동안은 매일 새벽마다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부르짖음이 제 영혼에 힘을 주고, 기도의 응답을 가져왔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부르짖으

가 있을까?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이죠? 예레미야의 간구는 오직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 주님이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시편 18편 31절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는 나의 구원자가 없음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상한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확실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절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께만 소망을 두고 간구함으로 영혼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가 자신의 구원만을 위한 기도였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그는 민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지금도 자신뿐 아니라, 온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세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정체성 정치- Identity Politics” & “성정체성 혁명 - Sexual Revolution” 으로 파괴된 지난 10년간의 미국 ---- 어디로 가고 있는가? (3)

다음은 PragerU 에서 선생 이였다가 왜 자신이 사명감을 가지고 너무 좋아하던 선생직을 그만두게 되었는지를 나누는 Kali Fontanilla(칼리 폰다닐라) 선생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지난 15년간 사명감을 가지고 중, 고등학생들에게 ESL 영어를 가르쳐 온 칼리 폰다닐라 선생님은 얼마 전 그렇게도 인생의 전부를 걸고 사명으로 일하던 교사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마음 아픈 결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전부를 학생들 가르치는 것에 걸었던 칼리 선생님이 왜 학교 교사직을 그만두어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녀가 PragerU를 통해 말한 것들을 정리하여 나눕니다.

the police” - 경찰에게 존경심을 표해야 한다.

“that there are only two sexes” - 성별은 남자, 여자 오직 두 가지다.

“that communism leads to misery” 공산주의는 불행의 길로 이끄는 시작이다.

공립교육 수업시간에 가르쳐지는 정치(Politically Correct)적 이념/사상 수업들의 악영향을 알게 되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사연맹 (Teacher’s Association)과 School Board 학군에서 내려온 수업 내용으로 인해 위와 같이 학생들에게 가르쳐왔던 것이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위처럼 가르쳐도 학생들은 다른 수업시간에 접점



Kali Fontanilla (Founder, Exodus Institute)

미 사회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다가 이민으로 미국에 들어온 학생들은 이런 공립학교의 잘못된 이념/사상 교육을 거부하고 그들의 속수무책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건국 사상,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절반의 학

생들의 모의재판을 수업시간에 진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미래를 지향한 건강한 목적을 가지고 사회발전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수백 년 전의 과거를 파내어 인문재판관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 과거가 아직도 존재하

가르치는 걸 삶의 전부로 생각했던 칼리선생님은 왜 결국 그만두었을까요?

“선생님이란 직업이 더 이상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걸 깨달았다.”는 칼리 선생.

칼리선생님은 조직 폭력배 문제로 오랜 시간 동안 골치를 앓고 있었던 캘리포니아 살리나스(Salinas) 지역에서 수많은 약한 유혹의 희생양으로 쉽게 넘어가는 학생들을 지켜보며 이런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 교육자의 길로 가기로 결정했고 그런 학생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삶에 성공할 것이라고 아래와 같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Good Path (좋은 방향의 가르침)를 가르치고자 했으며 그 중 몇가지 예들은...:

“their race didn’t define them” - 피부색(인종)이 우리/그들의 (인생)을 정의하지 않는다.

“that they should respect

완전히 반대되는 다른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교과서의 잘못된 세뇌 교육 현장!

다른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가르쳐지는 잘못된 이념/사상 수업들 내용 몇가지..:

“their race was their destiny “인종”이 곧 운명이다.

“that police were out to get them” 경찰은 널 잡아가기 위해 존재한다. (무섭고 두려운 존재)

“that their sexual identity is a personal choice” 성 정체성은 개인의 선택이다(따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

“Socialism is compassionate & communism isn’t so bad; but capitalism is cruel”

사회주의는 자비롭다! 공산주의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사실상 자본주의가 더 잔인한 것이다.”

내가 가르치던 학생 중, 이

생들은 이런 거짓 선동과 잘못된 이념/사상 가르침에 완전히 흥분하고 분노하며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선동되고 왜곡된 이념/ 사상 교육에 넘어가서 화난 학생운동가들까지 변하는 이유!

이유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우리가 알던 수업,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화려한 수업시간에, 하나같이 “사회정의”라는 명분 아래 반미 그리고 반기독교 운동가들이 되는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학교 활동시간으로 성별, 인종, 계급, 성적 취향을 각각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게 하고, 차이점을 찾아보는 퀴즈를 하고 또 다른 과제에서는 사회정의를 만든다는 취지를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원주민에 대한 대량 학살에 연루된 다양한 사람들을 기소하는 내

는 거처럼 말이죠. 다시 말하면, 다른 국가에서는 더 많이 일어나는 “죄와 악”의 이슈가 마치 미국에서는 “백인우월주의”로 인한 “인종 차별” 이슈인 것처럼 프레임하고 포장한 거짓이 진실처럼 가르쳐지는 것을 보며 나 스스로가 유색인종인 선생으로, 마음의 큰 아픔을 느꼈고 학교에 항의했으니, 결국 제가 학교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왜 “악”을 “선”으로 가르치는 걸까요?

미국은 흑인이 대통령이 됐을 뿐 아니라 흑인이어서 못하는 것이 없는 나라이며 유색인종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왜곡된 역사의식교육과 잘못된 정치적 사상 교육이 여기 한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다음호에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어느 교회 청년 부원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장차 목회자나 아니면 선교사의 길을 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이 아무나 갈 수 없는 힘든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부엔나 팍에서 J형제

A: 먼저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행태를 격려하고 축하하고 싶습니다. 목회자나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CCC가 필요합니다.

1) C (Calling 소명 즉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아브라함이나 이사야를 예레미야,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부름을 받지 않은 자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명이요 소명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란 소명은 신비한 방법으로만 부르심이 아니요 정상적인 인간의 추천 기회 결정, 초대, 파송의 기회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배를 드릴 때 “너는 말씀의 사역자가 되라”는 마음의 감동을 수없이 많이 받았습니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명인 줄 알고 순종하여 신학교의 문을 두드렸고 지금까지 목사가 되어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2) C (Course 훈련 과정)입니다. 아무리 소명을 받았어도 그 과정을 거쳐야 주의 종이나 선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라는 3년간

△ Calling 소명 즉 부르심

△ Course 훈련 과정

△ Commitment 헌신, 위탁

의 최소한의 소명의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주님께 훈련을 받은 것처럼 바울처럼 소명을 받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간 영적 훈련 지식적 훈련을 받은 것처럼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총신에 들어가면 5가지 돌비가 있습니다.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그래서 목자인 목사가 되려면 신자, 학자, 성자, 전도자의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지만 세례요한에게 이르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하시며 세례라는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되거나 선교사가 되려면 각종 신학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참고 인쇄하며 자신을 무장시켜야 합니다.

3) C (Commitment 헌신, 위탁)입니다. 주의 종이나 선교사가 되려면 그 사역이 사람을 다루고 가르치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역이므로 본인의 결단과 함께 헌신이 필요합니다. 배우기 위해 헌신을 해야 하고 사람을 섬기고 가르치기 위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힘들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정이 긴 것은 그만큼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자신을 부정하고 모든 세상의 욕심을 절제하고 버려야 하고 오랜 기간을 공부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후에는 사역에 헌신하고 위탁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종의 가는 길은 섬김을 받는 직책이 아니라 사람들과 교회를 철저히 섬기는 과정이기에 자신의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h3>						<h4>뉴욕목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신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강좌: 오후 08:00 금요침례: 오후 09:00 세례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361-9199, www.mo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boro, NY 11357</p>	<h4>뉴욕부르크루터교회</h4> <p>담임목사: 이운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세례기도: 오전 05:30 성경공판: 오전 10:00 화,토</p> <p>Tel: (718)265-2994, www.kcb.org 14 G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성경강좌: 오후 8:30 세례기도: 오전 05: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경음),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양무리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p> <p>Tel: (718)662-6611 147-01 38th Ave, Flushing, NY 11354</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화-토)</p> <p>www.cpcny.org, Tel: (516)387-9940, 9942(EV)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4>뉴욕주산양교회</h4> <p>담임목사: 김희복 주일예배: 오후 1:30 다인종예배: 오후 4:00 세례기도회: 오전 6:00 금요예배: 오후 8:30 구역모임</p> <p>Tel: (646)270-9037, kimheebok7@gmail.com 76-11 Woodside Ave, Elmhurst, NY 11373</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성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세례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342-9194, sundogchurchof.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h4>베이사이드 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식 강연예배: 부 오전 7:30 3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거년예배: 오후 6:00 수요거년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인민복음화예배: 매주목요일 오전 5:30</p> <p>Tel: (718)229-286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p>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50분 주일 3부 오후 1:50분 찬양예배: 오후 8:20분 세례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30분</p> <p>Tel: (347)513-1351, cheongsoonwong@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4>사랑의동산교회</h4> <p>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 주일3부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30 세례예배: 오전 5:20</p> <p>Tel: (516)433-0662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p>	<h4>새벽별주님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Tel: (917)733-7387, bmsch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p>	<h4>은누리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문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세례기도회: (화-토)오전6:00</p> <p>Tel: (845) 359-1459, http://ornuree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6:00</p> <p>Tel: (718)889-4040, www.kqpc.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NY: Tel. (718)889-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선군</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3>						<h4>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h4> <p>담임목사: 김성훈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세례기도: 오전 6:00(화, 금, 토) 금요중기도회: 매일 갖게,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매월 둘째(금) 오후 7:30</p> <p>Tel: (604)584-5780, www.pc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보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h4>브라질 서울교회</h4> <p>담임목사: 하경남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40</p> <p>Tel: 3277-1489, Fax: 3209-8343 Rua Joaquim Plaza, 281 Cambui S.Paulo Cep 01528-010</p>
<h4>아르헨티나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최광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63, CAP.FED., B.S., A.S.,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찬양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 Fax: (562)56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담임목사: 유문권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N 1R7</p>	<h4>하와이 행복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585-1869 1130 N. Lin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4>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h4>멕시코 현지인 교회</h4> <p>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하늘 신학대학 교수</p> <p>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p> <p>Tel: (52)33-3607-4111, hanimk@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믿음으로 선포한대로 이뤄지리라”

“말이 씨가 된다” 는 말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이 씨가 되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

입니다. 미래의 일들이 말한 대로 되기 쉬운데 말한 대로 선포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악한 열매를 맺기도 한다는 말

입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인생에서 열매가 되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하고 말하는 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 집니다. 성경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말은 우리 마음 밭에 무엇이 있는가를 드러내 주는 바로미터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4:28에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행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병상에 있는 사람이 매일 '냥을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그 낱을 믿으면 낱을 확률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같은 병이라도 나는 죽을 것이 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 말한 대로 되기 십상입니다. 물론, 모든 병이 다 마음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은 아니지만우리 마음의 태도는 우리 삶에서 방향 전환을 만들어 냅니다. 노래하는 가수들도 각각 부르는 노래의 장르가 있습니다. 이별을 노래하는 가수, 외로움을 표현하는 가수, 슬픈 노래를 구슬프게 부르는 가수 등등.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부른 노래대로 삶의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기쁨을 노래하는 가수, 삶의 행복을 표현하는 가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노래한 대로 삶의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노래를 계속하다 보면 뇌에 그 내용이 각인됩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이끌려 가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말의 견인력입니다. 사람의 말에 의해서 뇌는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죽겠다 말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배고프면 배고고 죽겠다고 하고 배부르면 배부러 죽겠다고 합니다. 심심해 죽겠다, 재미있어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미워 죽겠다. 삶에서 모든 것을 다 죽겠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이 세계에서 자살률 1위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죽겠다가 아닌 주께

다는 표현으로 순간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바탕이 삶에서 활력을 받도록 표현해야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의 말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배어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현상을 넘어 빛을 보고 선포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긍정적이고 희망이 섞인 말로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줄 때 그 말대로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큰 비전을 선포하고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을 더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끝내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gypaek@hot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영국 환경NGO “화석연료 투자 멈춰야”

지난달 중순, 영국 런던 시내에 있는 바클리스(Barclays) 은행의 한 지점 로비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 5명이 들어섰다. 이들은 금수 체인으로 서로의 몸을 연결해 두른 뒤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각자 플래카드를 들어보였다. 카드에는 '바클리스는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멈춰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들 할머니는 급진 성향의 기독교 환경 NGO인 크리스천 기후행동(CCA·Christian Climate Action) 소속 회원들이다. 영국 최대 은행인 바클리스는 유럽 최대의 화석연료 투자자로 꼽힌다. 회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려면) 당장 화석 연료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나는 내 손주들을 위해 여기에 와 있다”고 외쳤다. 이들 할머니는 경찰에 즉각 연행됐다.

다소 과격하다고 할만한 이같은 활동은 심각한 기후변화 위기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염과 폭우, 홍수와 가뭄 등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기후 변화 재난이 이미 도래했다는 분석도 많다. 미국은 기후 비상사태 선포까지 고려하는 가운데 주요국들의 크리스천 환경운동 단체들의 목소리가 여느 때보다 힘을 얻고 있다.

CCA의 경우, 영국성공회 회의가 열리는 장소에서 화석연료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유류 저장고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되거나 구금되는 일도 발생하지만 그리 연연하지 않는다. CCA 활동가들은 “(교회와 성도들은) 돌이킬 수 없는 기후 변화 재난을 예방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살기 좋은 지구로 보전하는데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한 마을은 1년 새 두 차례 큰 홍수를 겪은 뒤 교인과 주민들이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지역 토박이인 오빈 블레이크맨 목사는 최근 가디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신앙 공동체에서는 자연 재해와 그 원인에 대해 약간의 분열이 있다”면서 “하지만 빈번한 홍수 발생으로 (교인·주민들간의) 대화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에는 지역 교회 목사와 교인, 환경운동가, 연구원 등 40여명이 기후변화 관련 회의를 열기도 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교계의 이슈 제기는 전 세계 교회연합기구 의제로도 다뤄진다. 이달 말 독일 카를루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1차 총회에서도 세계교회의 기후위기 대응방안이 논의된다.

애플 2분기 호실적에도 경기침체 우려

시가 총액 1위를 달리는 애플이 2분기 실적에서 월가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적을 냈다. 이런 수치에도 미국의 국민총생산(GDP)은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사실상 '기술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 정부는 공식적인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 삶에 와닿는 경기 침체는 악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애플은 28일(현지시간) 올해 2분기 순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10.6% 줄어든 194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매출액은 1.87% 상승한 830억 달러로 애플의 2분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매출과 순이익은 모두 월가의 컨센서스(실적 전망치 평균)를 뛰어넘은 것이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여기저기 약간 구석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1년 전과 비교한 성적을 봤을 때 2분기와 견줘 3분기에 매출이 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은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2분기에 두 분기 연속으로 영업손실 기록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 등도 실적 전망치를 밑도는 성적을 기록했다.

미국 경제도 악재를 기록했다. 미 GDP가 1분기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것이다. 공식적인 경기 침체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2개 분기 연속 GDP 역성장엔 기술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WSJ,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 상무부는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연율 0.9%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1분기 -1.6%를 기록한 데 이어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치를 보였다.

CNN은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를 정의하는 중요한 상징적 문턱”이라며 “재의 혼란스러운 경제 환경에서 이번 데이터 발표는 엄청난 중요성을 띠게 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 수장들은 경기 침체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경기 침체에 빠져 있던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져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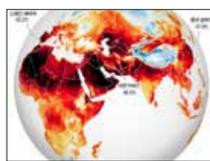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날 경제 성적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지난해 역사적 수준의 경제 성장에서 벗어나고 전염병 대응 위기 때 잃은 민간 부문 일자리를 모두 회복함에 따라 경제가 둔화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우려의 선을 그었다.

경제학자들은 연준의 두 달 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과 추가 인상이 더 빠른 경기 침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연준이 고용과 지출에 큰 타격을 입히기 전 금리 인상 속도에 제동을 건다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공식 선언보다 경제적 현실이 더 중요하다”며 “사람들이 급등하는 물가를 따라잡는 것이 어렵고 기업도 성장이 둔화해 후퇴하고 있다”고 전했다.

열 받은 지구... 유럽 곳곳에서 '불이야~'

비교적 선선한 여름을 맞은 한국에 비해 서방은 기록적인 폭염을 맞았다. 유럽과 미국은 지금 불타



오르고 있는 듯한 여름이 갑작스레 찾아왔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은 폭염으로 2000명에 달하는 사람이 사망했다. 산불 화재도 피해를 키우고 있다. 프랑스도 폭염과 산불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 22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20일 동부 코닝스버 지역이 낮 최고기온이 40.3도로 사상 최고기온을 갈아치웠다. 앞서 영국의 최고 기온 기록은 2019년 38.7도였다. 프랑스는 마르세유·몽펠리에 등 동남부 일부 지역에서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올랐다.

폭염과 산불이라는 불청객이 한꺼번에 찾아온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힘겨운 싸움에 접어들었다. 열흘간 지속된 댜더위로 누적 사망자는 20일 기준 1925명을 기록했다. 스페인 폭염 관련 사망자를 매일 집계하는 카를로스3세 연구소는 지난 10일부터 18일 동안 누적 사망자가 862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스페인인 산불로 인해 7만ha에 달하는 산림이 재가 됐다. 30개의 크고 작은 마을로 산불이 퍼졌다. 스페인 소방 당국에 따르면 중부 카스티야리레온, 에스트레마두라의 불길은 대부분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북부 갈리시아 지방에 퍼진 산불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그리스 아테네와 이탈리아 로마 인근에서도 강한 바람과 자연발화로 크고 작은 산불이 일어나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포르투갈은 최고기온이 47도를 기록했다. 포르투갈 보건 당국은 지난 7일부터 11일간 온열 질환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1063명이라고 밝혔다.

이베리아반도에서 약간 떨어진 독일도 들이닥친 폭염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독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바트메르켄트하임 노이키르헨에서 40.3도의 불발더위가 찾아왔다. 이는 2003년 프라이부르크의 40.2도를 넘어선 역대 최고기온이다. dpa통신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바덴바덴에서 폭염으로 전봇대에 걸린 전선 케이블의 외부 피복이 벗겨져 정전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프랑스는 서남부 와인 생산지 인근에서 산불 진화작업을 벌였다. 프랑스 소방 당국은 보르도 인근 지롱드주에서 산불을 잡고 있으며, 산불 저지선을 구축하고 밀클로와 테스트드루시까지 번진 산불로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산불로 프랑스는 파리 면적의 배에 달하는 2만9000ha가 불에 탔다. 프랑스24는 산불로 발생한 이재민이 약 4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했다.

전쟁으로 황폐화된 우크라이나에도 폭염이 찾아왔다. 우크라이나 27개 지역 중 15개 지역은 폭염으로 화재 발생경보가 내려졌다.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오테사, 미콜라이우, 헤르손, 자포리자 등으로 격전이 벌어진 곳이다. 우크라이나 기상청은 25일까지 남부와 서부 지역, 빈니차, 지토미르 지역이 극심한 화재 위험 수준에 놓일 것으로 예보했다.

미국도 폭염을 피하지 못했다. 유럽과 맞먹는 폭염이 찾아와 40일 연속 기온이 40도 이상 지속되는 곳도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 같은 폭염은 중·동·남부로 확산 중이다. 미국 기상청은 캘리포니아, 오클라호마, 텍사스, 아칸소, 루이지애나, 뉴욕 등 28개 주에 걸쳐 폭염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40일 연속 40도 이상의 폭염이 찾아온 오클라호마는 20일 43도로 역대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캘리포니아부터 뉴잉글랜드까지 중부 지방에서 약 1억명이 넘는 미국인이 불발더위를 경험하게 됐다고 NYT는 전했다. 아시아에도 폭염이 찾아왔다. 중국은 중·남부 지역이 낮 기온이 최고 40도를 넘어가고 있다. 인도 수도 델리는 지난달 최고기온 38도에 체감기온 56도를 기록했다.

필필 꿇고 있는 북반구와 달리 남반구에 있는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때마침 폭설이 찾아왔다. 아르헨티나 현지 매체 디탈리제로에 따르면 23일 아르헨티나 서부 네우켄주 인근 안데스산맥 일대에서 최소 22cm에서 1m가량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다.

폭염의 이유로 3가지 원인이 있다고 영국 기상청의 스티븐 벨처 수석과학자와 폴 데이비스 기상학자는 분석했다. 그는 첫 번째로 북반구에 있는 5개의 고기압에 파동 패턴이 있는 것으로 봤다. 서태평양, 북아메리카 대륙, 유럽 대륙, 아시아 대륙, 북태평양 등 북반구에 있는 5개 고기압을 폭염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유럽·미국·중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 폭염이 온 이유가 이들 고기압 전선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온실가스 증가로 기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 중 온실가스가 축적돼 오존층이 파괴돼 고기압 형성 요건을 강화하고 폭염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석유값 또 뛰나...천리 행보 OPEC

하이탑 알가이스 석유수출국기구(OPEC) 신임 사무총장이 산유량 합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책임으로 러시아를 산유량 합의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는 전망과 정반대되는 발언으로 미국이 요청한 증산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알가이스 사무총장은 이날 쿠웨이트 일간 알라와 인터뷰를 통해 “OPEC은 세계 에너지 지도에서 크고, 중추적이며, 영향력이 큰 참가자인 러시아와 경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서방의 제재와는 무관하게 산유량 합의에서 러시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이다.

그는 “최근의 유가 상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며 “모든 데이터는 가격이 전쟁 이전부터 서서히, 점증적으로 상승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석유 추가 생산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시장에서 팽배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 등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원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서방의 시각과 거리를 둔 것이다.

알가이스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3일 OPEC과 러시아 등 비 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의 원유 증산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서방은 국제 유가와 에너지값 하락을 위해 OPEC+에 증산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주요 산유국이자 유가 상승에 따른 이익으로 전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만큼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국제 유가는 OPEC+의 결정에 따라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OPEC+는 지난 6월 회의에서 서방의 증산 요청에도 불구하고 8월 석유 증산량을 6월 초 결정된 하루 64만8000배럴로 유지할 바 있다.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로 원유 생산량을 줄이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 5월에 OPEC+의 원유 증산 할당량을 채우지 않았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이에 대해 알가이스 사무총장은 “OPEC은 유가를 통제하지 않지만,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시장 조절을 실행한다”며 “현재 석유 시장 상태는 아주 번거롭고 불안정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OPEC+의 증산이 불발될 경우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우디를 방문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크게 금이 갈 것으로 보인다.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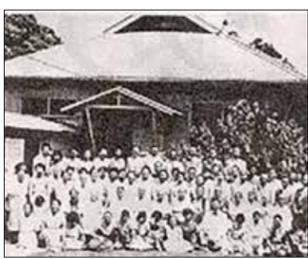
151. 백운택 (1883-1948)

백운택 (白運澤)은 1883년 3월 20일에 한국에서 태어나 소학교를 졸업했다고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도 한다. 그는 노동 이민으로 1903년에 하와이에 도착하면서 Paik Woon Taik으로 통했다.

박용만이 1912년에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 기관지인 신한국보 주필로 부임하면서 이듬해 5월에 하와이 정부로부터 특별경찰권을 승인받아 하와이 각 섬에 대한인국민회 경찰부장을 설치하여 일본 정부의 간섭을 배제했고, 1914년 6월에 하와이 오하우섬 가할루에 대조선국민군단과 대조선국민군단 사관학교를 창설하여 독립군 양성을 본격화하여 100여 명 단원으로 군단에 기속하면서 농장에 나가 노동을 하면서도 야외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교실에서 군사학을 공부했다. 사관학교는 미국 군대를 모방하여 군단사령부 단장에 박용만, 부관에 구중권과 태병선, 장재에 최순서, 서기에 백운택을 선임하였고, 군단사령부 외에 군단 경리부, 제복소, 병학교, 훈련소 대대, 훈련소 중대, 훈련소 소대, 별동대, 전호소, 경수 등의 조직이 있었다. 1916년에 농장주의 압력으로 계약이 취소되어 1917년에 위의 사관학교는 문을 닫았다.

1917년 1월에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가 모여 신임 임원을 선출했다. 총회장에 안현경과 부총회장에 이종홍이 되었고, 총회장의 인선에 따라 백운택은 재무로 선임되었다. 그의 임원으로는 총무에 김광옥, 서기에 박운택, 학무원에 손창희, 법무원에 박원길, 구제원에 박승준, 농상부장에 오 훈, 군무부장에 정두옥이었다. 백운택은 1919년 8월에 독립운동의연금을 기부하며 독립운동에 힘썼다.

대조선국민군단과 대조선국민군단 사관학교 그리고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 등에서 하와이 한인사회에 적지 않게 영향력을 발휘한 백운택은 안순남과 정영W와 함께 1919년 3월에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모인 제14차 하와이 연회에서 한인감리교회 전도사로 임명되었고, 그는 가와이섬 구역 선교사로 파송받았다. 그해 파송된



와히아와 한인감리교회 (1921년)

한인으로는 하와이섬에는 힐로에 김이제, 호놀가이지에 박기홍, 고하리에 이관목, 파할나에 한명고, 파파로아에 박중수, 가와이섬에는 골로아와 막가웰리에 박WT, 리휘에 안상호, 마우이섬에는 하나에 장영환, 스프레클스빌에

홍환식, 그리고 오하우섬에 예와에 임준호, 호놀룰루에 홍환식, 와히아와에 임잔호가 있었다.

백운택은 그해 가와이섬의 골로아와 막가웰리에서 노동하는 한인들을 찾아 전도하면서 골로아 한인감리교회와 막가웰리 한인감리교회를 시무했다. 1920년 2월까지 1년간 어린이 3명이 유아세례를 받았고, 학습을 받은 어린이 26명이 세례를 받았으며, 20명의 학습 교인이 등록하였다. 그달에 학습 교인은 20여 명이였다. 이 구역에 주일학교를 한 곳에 설치하고 직원과 교사로 2명을 임명하였으나 등록된 학생은 없었다. 예배당 건물 4곳에 있었는데 건물과 대지의 시가가 2,420달러나 되었다. 한 해 120달러를 지출하였고, 100주년 기금으로 68달러를 헌금했다.

1920년 2월에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모인 제15차 하와이 연회에서

A.W. 레오나르도 감독은 백운택을 가와이섬의 리휘/길나위아 구역에 구역 선교사로 파송하였고, 함준후와 송공순을 권사로 임명하였다. 백운택은 와이메아에 거주하였는데 그해 이곳에 거주했던 최기옥(44세)과 그의 부인 순광(28세)과 아들(4살 6개월) 그리고 처남 이태채(9세), 김수선(26세), 김창수(22세)와 그의 부인 Y각(21세)과 딸 C혜(3세)와 아들 T길(1.5세)과 어머니 김춘옥(53세)과 동생 C살(11세), 임용상(60세)과 그의 부인 임마다(58세)와 아들 규(30세)와 처제 임강시(31세)와 손자 성숙(2세)은 그가 목회하는 교회의 교인으로 보인다.

백운택은 리휘 한인감리교회에서 1921년 2월까지 1년 동안 성인 세례자나 유아세례자가 생겨나지 않았으나 학습을 받은 자는 19명이나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한 해 동안 교인 4명이 사망하는 슬픔을 맞았다. 주일학교를 설치하여 25명이 등록한 가운데 교사 한 명이 가르쳤다. 예배당 건물과 사택이 있었는데 예배당 건물과 대지는 1,000달러에 해당하였고, 사택은 예배당보다 500달러가 많은 시가 1,500달러였다. 그리고 100주년 기념 기금으로 29달러를 헌금했다.

지난 1년 동안 골로아 한인감리교회에서는 세례교인이나 유아세례교인이나 학습교인은 생겨나지 않았고, 교회 학교도 없었으나 100주년 기념 기금으로 18달러를 헌금했다. 이 교회에는 사택은 없었으나 예배당 건물이 있었는데 대지와 건물이 1,000달러에 해당했다.

파후 등에 필리핀인 전도사와 간호사를 파송하였고, 일본 사역을 위하여 아이에아, 필하버, 가하루우 그리고 호놀룰루에 일본인 전도사를 파송했다.

지난 1년간 신실하고 성공적으로 사역했다는 보고에 따라 백운택은 브라우리우 T. 마가파갈, 가브리엘 D. 자비어와 함께 집사 목사 과정에 등록하여 1년 차에 들어섰고, 그달에 몬로 H. 알렉산더, V. 라자로, 일본인 소조 아라가와와 가수 히가 그리고 황사용과 함께 하와이 연회 오프이스 연맹부에 소속되어 활동했다.

그해 10월에 하와이에서 포화대조선 국민대표 기성회가 조직되었다. 본회는 해내외에 산재한 민족의 난국을 수급하여 최고기관을 완성하기 위하여 성립되었는데 대조선민족의 혈통으로 절대 독립운동에 대하여 물질과 생명을 바치는 자는 아무나 본회에 가입할 자격이 있었다. 회장은 황사용, 부회장은 신홍균, 총무는 조병요, 재무는 강영호 그리고 서기는 김진세였고, 백운택은 임준호, 김만수, 정두옥, 주명근, 이상호, 최두옥, 이종홍, 유동면, 함삼내, 남세운, 이선일과 함께 대조선국민대표 기성회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와일누나 한인감리교회에서 1922년 2월까지 1년간 목회하여 성인 한 명이 세례를 받았고, 어린이 15명이 유아세례를 받았으며, 2명이 학습을 받았다. 그달에 세례교인은 23명이었으며, 주일학교에 등록된 학생은 13명이었지만 평균 매주 10명이 출석하여 교사 한 명이 가르쳤다. 그달에 예배당 건물과 대

으로 호놀룰루 제일 한인감리교회에서 인쇄하였고, 초기에는 이삼만이 사장이었는데 당시에는 김이제가 한인교회보의 편집인이자 발행인이었다.

그런데 백운택은 가브리엘 D. 자비어와 함께 1924년 2월에 하와이 연회에서의 사역을 중단하면서 집사 목사 훈련 과정도 중단됐다.

1930년 2월에 호놀룰루에서 모인 제25차 하와이 연회에 한인들이 꽤 진출했다. 장로 목사로는 4번째 전도하는 안창호, 20번째 전도하는 홍환식, 7번째 전도하는 현순, 17번째 전도하는 이관목과 임준호 그리고 5번째 여성 목사였던 김이제가 있었고, 지방 집사 목사로는 박중수, 이현리, 변프리트가 있었다.

그해를 전후하여 백운택은 하와이 마우이섬의 하나 한인감리교회 예배당에서 개교한 '하나 한국학교' 교사로 활동했다. 그해 임준호가 마우이 구역의 구역 선교사로 파송 받아 스프레클스빌 한인감리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면서 마우이 구역에 산재한 한인감리교회를 순회 방문하였는데 지방 전도사 5명과 함께 동역했다. 그해 백운택이 담당한 '하나 한국학교'도 감독했을 것으로 보인다. 1938년경에 백운택은 하와이 호놀룰루로 이주하여 본래 산림이였다가 산림 이외의 용도로 전환되어 이용해 온 토지에 인위적으로 다시 산림을 조성하는 재식림 회사에서 노동했다.

1905년 11월 17일에 한일늑약이 체결된 후 1910년 8월 22일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사이에 합병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지 36년이 되던 1945년 8월 15일 수요일에 일본제국의 패망으로 36년간 일본군 조선현이었던 대한제국이 꿈에도 그리던 독립을 하였다. 광복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4개월 후인 1948년 12월 27일에 백운택은 향년 66세에 하나님의 부르름에 응하여 그달 29일에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다이아몬드헤드 기념 공원의 섹션 D의 83-E에 안장되었다. 45년간 미혼으로 타향인 하와이에서 거주하였지만 대한 독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겪은 것만 해도 백운택에게는 천만 다행이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에 백운택에게 대한 독립에 관한 공훈을 기려서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amien,sohn@gmail.com

1919년 3월 제14차 하와이 연회에서 한인감리교회 전도사로 임명 1923년 2월 하와이 감리교 선교단 한인부의 관리하에 있는 한인교회보에 파송 1948년 12월 27일에 향년 66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 2011년 대한 독립에 관한 공훈을 기려서 건국포장을 추서

막가웰리 한인감리교회는 골로아 교회처럼 세례교인이나 유아세례교인이나 학습교인은 생겨나지 않았고, 교회 학교도 없었으나 100주년 기념 기금으로 6달러를 헌금하였는데 위의 세 교회 중 가장 연약했다.

백운택은 1921년 2월에 오하우섬의 구역 선교사로 파송받아 와일누나 한인감리교회와 인근 가하루우 한인감리교회와 같은 섬의 와히아와 한인감리교회를 섬겼다. 그해 오하우에 파송받은 한인으로는 예와 한인감리교회와 와이파후 한인감리교회에 파송된 임잔호, 호놀룰루 한인제일감리교회에 파송된 황사용, 위의 교회에 파송된 권사 조 TY 부인이 있었다. 그리고 오하우섬에는 필리핀 사역과 일본 사역도 있었다. 필리핀 사역을 위하여 아이에아, 필하버, 호놀룰루, 가하루우, 와이마나로, 와이

지의 시가는 4달러에 불과했고, 1년간 지출은 10달러였으며, 백주년 기념 기금은 1년 지출금의 다섯 배가 되는 50달러나 되었다.

1922년 2월에 호놀룰루에서 개최한 제17차 하와이 연회에서 감독 찰스 L. 미드 목사는 백운택을 하와이섬의 코하라 구역에서 노동하는 한인 노동자를 전도하기 위하여 구역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그달에 그는 브라우리우 T. 마가파갈과 가브리엘 D. 자비어와 함께 집사 목사 과정 2년 차에 들어섰다. 그런데 1923년 2월 연회록에는 그가 맡은 코하라 구역에 대한 목회 보고가 없어 그의 목회 소식을 확인할 수 없다.

이듬해인 1923년 2월에 백운택은 한인교회보에 파송되었다. 한인교회보는 1912년에 하와이 감리교 선교단 한인부의 관리하에 감리교 서적부가 월간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라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용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850) 423-9700, Fax: (702) 257-996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다민족교회</p> <p>담임목사: 홍귀표</p> <p>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제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양육: 매주(목) 오후 4:00-7:00</p> <p>Tel: (702) 802-1112, estroses@yahoo.com 6050 W. TOLUHY Ave., Chicago, IL 60646</p>	<p>몽고메리교회</p>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인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 배: 오전 10:00 수요양육예배: 오후 8:00</p> <p>Tel: (215) 945-6446,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St., Levittown, PA 19067</p>	<p>벤틀교회</p> <p>담임목사: 백성중</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45 다민족: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 461-1236,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p> <p>담임목사: 장성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양육예배: 오후 8:00 영지, 유년, 종교대학: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508)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ingham, MA 01748</p>
<p>새생명한인교회</p> <p>담임목사: 정성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E M 예 배: 오후 7:00(목) 새벽예배: 오전 6:00(화/목/토) 구역예배: 각 구역별로 한국회고: 오전 10:20(주일)</p> <p>Tel: (703) 423-9700, Cel: (213) 703-9961 5502 Old Bethel Rd., Crestview, FL 32536</p>	<p>안디옥교회</p> <p>담임목사: 강준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702) 749-9829, www.om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p>	<p>일산사제자들교회</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 820-9049, www.jesu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앵커리지열린문교회</p> <p>담임목사: 유재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영생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백은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킬린누리교회</p> <p>담임목사: 김성환</p> <p>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양육예배: 오후 7:00 금요양육예배: 오후 8:00 토요양육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p> <p>Tel: (254) 635-1842(H), (254) 6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841</p>
<p>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03) 8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타코마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장호</p> <p>주일영양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15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 536-6675, www.tacomakc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말씀과 땅 (14) - 접속사 '레마안'

박성현 박사

(고든콘웰신학대학원 구약학교수)



날이 뜨거워 어느 하루, 잠막 문에 앉아 있던 아브라함은 맞은편에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곧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창 18:2) 그들을 잠막으로 청해 웅송히 대접했다.

일 년 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약속을 남기고 이제 그 일행이 길을 나서는데,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온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문득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창 18:17b)

그다음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 여호와께서 “하려는 것”은 다름 아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었고 그 두 성의 “모든 행한 것이 과연” 여호와께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고자 하셨다(창 18:21).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비는 아브라함

1. “하려고”

첫째, 우리는 ləma ‘an이 이끄는 목적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는 책임과 목적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창세기 12장 2-3절을 통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신 바 있다. 그 약속은 창세기 18장에 다시 언급되고 아울러 여호와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된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창 18:17b-18)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큰 민족, 복의 근원이 될 약속을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뜻

과일 것임을 말씀한다:

“...이는(ləma ‘an) 나 여호와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창 18:19b)

원문상에서 이 문장은 ləma ‘an으로 시작하는 목적절인데 해석하게도 한글개역개정을 통해 원문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ESV를 보면 다음과 같이 옮기고 있다: “so that (ləma ‘an) the LORD may bring to Abraham what he has promised him.”

다시 한번, 우리는 자칫하면 여호와께서 창세기 12장 2-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즉,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약속이 무조건적으로 성취되어질 것이라

리니까”(창 18:24).

이 절에서 ləma ‘an은 19절과 다르게 접속사가 아닌 복합 전치사로 사용되는데, “때문에”가 아닌 “위하여”의 뜻을 가지며 이 점을 개역개정이 잘 옮기고 있다. 오십 의인 ‘때문’(because of)이 아닌 그 오십 의인을 ‘위해’(for the sake of) 심판을 재고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내용이 다. 이유가 아닌 목적 - 이것이 아브라함의 중보의 바탕이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악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사를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창 18:25)

자격이 아닌 ‘위함’ -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의 의인됨으로서의 자격이 아닌, 오직 의인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었고, 아브라함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를 토대로 중보했고, 결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써포트 그룹

작년에 남편을 잃고 다른 주로 갔던 제자에서부터 연락이 왔다. 이제 곧 병원 원목 훈련을 받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로 가야 하는데 떠나기 전에 한 번 만나고 싶다고 했다. 연락받은 다음 날 시간이 된다고 했더니 그날 마침 아주사신학대학원 동창들 모임이 있는데 내가 합류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이다. 오랜만에 제자를 얼굴도 볼 겸 그렇게 하기로 했다. 모임에 가보니 신학 석사를 마치고 우리 학교 목회학 박사과정 중에 있는 다섯 명의 여학생들의 만남이었다. 여학생이라고 해서 어린 학생들은 아니고 오십 살이 넘는 목사, 사모, 그리고 전도사로 구성된 인생 경험이 많은 분들의 모임이다. 박사과정 논문 작성하는 얘기부터 선교 이야기, 그리고 소소한 일상까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점심시간에 만났는데 저녁 시간이 되어서 집으로 왔다. 그 모임의 멤버 중 한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다 개성이 강한 분들이다. 그래서 처음 모임을 가질 때는 서로 갈등도 있고 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아주사퍼시픽 신학대학원 학생이라는 공통분모 위에 모임을 계속하다 보니 서로의 삶도 더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통해 힘을 얻으며 다른 모임에서 찾을 수 없는 편안함이 있다고 했다.

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디렉터로서 학생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신학대학원 재학 중에 학업에 몰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평생 친구들을 만들라는 말을 자주 한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로서 교회와 사람들을 섬길 때 속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를 벗어나서도 좋은 친구를 둘 수 있지만 공통의 관심사와 목표를 지닌 사람들끼리 서로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그룹을 이루는 것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된다. 더구나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 마음에 많은 부담과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평신도와 쉽게 나눌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던 일들도 서로 나누다 보면 다른 사람의 지혜를 통해 간절하게 정리가 되기도 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듣기도 한다. 때로는 내가 힘들어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즉 “나만인 줄 알았는데 너도?”라는 사실이 외로운 길을 갈 때 힘이 되는 것이다.

나에게도 신학대학원 시절 함께 공부했던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는 써포트 그룹이 있다. 학교 졸업 후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다가 다시 연결이 되어서 매주 기도모임을 가졌었는데 각각의 스케줄이 안 맞아서 몇 년 후 기도모임은 중단되었다. 요즘은 낯자를 정해놓고 만나지는 않지만 한 달에 두 번 정도 함께 식사를 하며 이리저리 대화를 나눈다. 어떤 때는 천국에서 우리가 지닐 새로운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신학적인 상상을 나누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치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들인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걱정도 하지만 때로는 별 의미 없이 하하 웃는 싱거운 농담을 주고받기도 한다. 이십여 년 넘게 알고 지나다 보니 편안하고 부담 없이 자신의 삶을 나눌 뿐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모임으로 성장한 것이다. 서로의 장점, 단점을 극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그룹이 써포트 그룹일 것이다. 나 혼자 갈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곁에 두신 귀한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며 걸어가 수 있는 써포트 그룹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한다.

lpyun@apu.edu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큰 민족, 복의 근원의 약속 또한 예수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드린 중보의 기도 역시 메시아 예수의 사역 속에 그 의미를 갖기에 이른다

의 중보로서, “그 성 중에 의인 오십 명이 있을지라도...”(창 18:24)로 시작해 의인 오십 명에서 사십 명으로, 다시 사십 명으로 또 삼십 명, 이십 명, 그리고 십 명까지 이어져,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32절)는 약속을 받으며 마쳐진다.

이 위대한 중보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접속사의 역할이다.

성령의 뜻을 잘 살피고자 할 때 종종 우리는 본문에서 접속사가 갖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곤 할 것이다. 창세기 18장의 접속사 ‘레마안’이 그렇다.

레마안(ləma ‘an). 전치사 lə가 명사 ma ‘an에 접두사로 붙은 형태로 이루어진 이 접속사는 창세기 18장에 세 번 사용되었는데, 그 각각의 용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본문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과 관련해 본질이 기여하는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우 그에게 감추지 않으셨다는 말씀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약속에는 뚜렷한 목적과 책임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ləma ‘an) 그를 택하였나니...”(창 18:19a)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의 ‘행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약속을 받았다고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창세기 18:19a 본문에서 저자는 접속사 ləma ‘an이 이끄는 목적절을 통해 두 가지를 분명히 한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는 책임이 있었다는 사실과 아울러 아브라함이 자식과 권속으로 하여금 “여호와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할 목적을 위해 택함 받았다는 것이다.

2. “이느”

둘째, 이 약속의 성취는 앞서 언급한 책임과 목적에 따른 결

고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창세기 18장 19절은 이 절에 대해 분명히 말씀한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자식과 권속을 가르칠 책임이 있어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할 목적을 위해 택함을 받았고, 그리함으로써 여호와께서 창세기 12장 2-3절의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이다.

3. “위하여”

이렇게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서 자신의 부르심이 그 후손으로 하여금 여호와와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호와께로부터 직접 듣게 되는데, 이런 그의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해진 후 바로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접하게 되었다. 이때 아브라함은 다음 질문을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 성 중에 의인 오십 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ləma ‘an) 용서하지 아니하시

국 아브라함의 중보에 계속 양보하듯 임하는 하나님의 답은 그 정의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오십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창 18:26).

4. 마치는 말

훗날 역사가 증언해 주듯듯이, 그 후손으로 하여금 “여호와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고자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삶은 예수 안에서 그 목적을 달성했다. 그에게 주어진 큰 민족, 복의 근원의 약속 또한 예수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드린 중보의 기도 역시 메시아 예수의 사역 속에 그 의미를 갖기에 이른다. 창세기 18장에서 우리는 그 시작의 구성을 문법의 틀을 통해 조금 더 분명히 볼 수 있다.

spark4@gordonconwell.edu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대학원예배: 오후 2:00 금요오찬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 521-03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4) 446-4499 / www.lbcgoc.com Tel: (323) 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714) 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청년회 예배: 오후 1:20 영어권 (중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 719-2244, www.dkco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젖어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 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 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찬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323) 737-3009, Cell: (213) 215-8523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Tel: (213) 381-2202, www.mpcda.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714) 446-6200, www.gracemc.org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교회 담임목사: 김한오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일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 854-4010 / bethel@bcw.org / www.bkw.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 22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살비지 사랑교회 (Seal Beach St-Rang Church)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6:30 Tel: (310) 749-4756 살비지 리저널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323) 737-3009, Cel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장로교회합동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 10:00~오후 4:30 사역대상: 2. 해외 한인교회 여성선교회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기쁨사역 4. 네트워킹 사업 www.elpisfamily.org Tel: (213) 700-98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국제세계기도회: 365일 24시간 온오프 Tel: (714) 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행회: 오후 7:20(금) Tel: (310) 325-4020, www.junimchurch.org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14) 646-9259 www.soci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ew.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수-요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찬양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ancecgo.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주일 3부예배: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아름답게 일어내기”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 500-2948, dbcc.kim@cbicc.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다시 만날 사람들

한국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 고 있었습니. 모든 준비를 마 할 손님들 맞이할 준비를 하 치고 기다리며 안내하기 위해

서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예 정 시간보다 2시간이나 늦었다 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다리 며 열 처녀 비유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설렘과 동시에 인내도 필요하 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튼 예정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손 님들에게 꽃을 주며 반갑게 맞 이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 어, 이게 누구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 나는 쪽을 향 하여 돌아서는 순간 너무나 익 숙한 얼굴, 반가운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8년 전에 서울 지하철에서 우연히 한 번 만나 고, 32년 전에 헤어진 대학교 선배였습니다. 섬기는 교단은 다르지만 목회자의 길을 걸어 가고 있는 선배였습니다. 선배 를 미국 LA에서 28년 만에 다시 만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 다. 비록 섬기는 교단이 달라서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는

이 거의 전무하였지만 같은 사 명자의 길, 목회의 길에 있다 보니 결국은 만나게 된 것입니 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 들은 서로가 사랑의 띠로 하나 가 된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 님을 하늘의 아버지로 섬기게 된 한 식구입니다. 따라서 성도 들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또다시 만날 사람 들입니다. 내가 만나는 성도들, 내가 대하는 성도들은 다시는 안 볼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 에서 다시 만나 하나님께 경배 과 찬양을 함께 드릴 거룩한 믿 음의 식구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성숙한 성도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언젠가 다시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로 마음 속에 간직하고 행동 가운데 표 현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람들을 대 함에 있어서 항상 조심스럽게

대하고, 피해를 주지 말고, 깊 은 상처를 주는 삶을 살지 말 것 에 대해서 충고해 주기 위해 서 ‘월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 난다’라고 말합니다. 한 성도님 이 장을 보기 위해서 마켓에 갔 는데, 자신의 눈앞에 15년 전에 계단을 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있 었는데, 자신을 보자마자 웃 고 있던 얼굴이 굳어지더니 자 신을 피해서 도망갔다고 합니 다. 아주 뻔뻔하거나 양심이 화 인 맞은 사람을 빼놓고, 상대방 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하였거 나 실수하였거나 마음에 걸리 는 행동이나 말을 하였는데 상 대방을 만나게 되면 얼굴이 굳 어지거나 피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양심에 꺼리끼는 것 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 를 만나든 피하지 않고 다가가 반가이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 움이 없다는 양심의 고백입니 다. 우리가 어쩌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만난 사람 들, 내가 대했던 사람들을 다시 는 안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 만 내가 만났던,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참된 성도라면 이 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은 성도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 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롬 12:18).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다시 만날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할 수 있는 한 화 목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 기를 소망합니다. yosupbois@hotmail.com

한인가정상담소와 PCB뱅크 어린이 재정교육 실시

“아이들에게 올바른 경제습관 형성해 줘야”

한인가정상담소(KFAM 소 장 캐서린 염)와 PCB뱅크 (PCB Bank 행정 핸리 김)가 공동으로 지난 7월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인타운 소재 키즈벨 스쿨(609 S. Westmoreland Ave LA)에서 어린이 재정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아동들 에게 경제 기본관념과 생활 속 실천을 알려주기 위해 기획됐 으며 PCB뱅크 직원들이 자원 봉사자로 참석하였다. 1학년부

터 4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재화, 저 축, 소비 개념을 가르치며 기본 경제개념을 익히도록 했다. 강 의 후 아이들은 입출금 모의 실습을 통해 저축 습관을 기르 고, 직접 물건을 사보는 쇼핑놀 이를 통해 계획적인 물건 구매 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다. 한인가정상담소 캐서린 염 소장은 “어릴 때부터 돈의 가치와 소 중함을 알게 해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경제습관을 형성해 저 축의 소중함과 합리적인 소비 자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

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한인가정상담소와 PCB뱅크가 공동으로 실시한 어린이 재정교육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새생명선교회 장학생 명단

새생명선교회 100명 장학생 발표

키르기스스탄의 케인 대학에도 지원

새생명선교회(회장 박희민 목 사, 이사장 박경우 장로)가 실시 한 2022년 장학생이 발표됐다. 본 선교회는 작년에 이어 금년 2022년에도 COVID 19 이후 재 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미주의 한인 대학생 및 신학대학원생들 을 격려하기 위하여 100명을 선 발하여 총 15만불의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다. 금번 새생명선 교회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들은 이번 가을학기 대학 입학 예정자를 포함, 대학 재학생, 그 리고 신학생의 경우 대학원생까 지 포함되었으며, 엄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발된 장학생 명 단은 7월 말 이메일과 홈페이지 newlifemissionfdn.org, kcmusa.org를 통해서 발표했

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의 케인 (Kein)대학교(신경희 총장 Seed 선교회 소속)에 1만불을 지원했다. 새생명선교회는 2004 년 설립되어 그동안 중국에 15 개, 과테말라에 5개, 동티모르에 1개, 몽골에 1개의 교회 설립을 지원하였고 중국, 과테말라, 몽 골, 필리핀, 루마니아 등 현지에 서 교회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 했다. 한국의 농촌교회와 개척 교회 3곳을 지원하고 있으며 베 트남에 고아원 건축을 지원하였 다. 현재 미국내 기독교 단체 미 주성서화운동본부, 프론티어 벤 처스, 씨드선교회, KCMUSA를 후원하고 있다 (기사제공: 새생명선교회)

목회자도 쉼이 필요합니다

〈1면에서 계속〉 목회자들은 올바른 행동의 본 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다. 만 약 자신의 육체적 건강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면 영적 건강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위선적인 일이다. 설교자의 비대한 몸은 영적인 훈련을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없다. 즉, 워커홀릭 목회자 는 절제를 정직하게 전달할 수 없다. 목사는 결코 교회의 영웅이 아니다. 당신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당신의 교회 역시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당신이 교회를 잘 이끌고 있다면, 당신

은 당신이 쉬는 동안에도 봉사 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들을 갖 추게 될 것이다. 전반적인 사역들은 재능있는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중심으로 세워져 왔다. 그러나 그 모델은 명백하게 잘못되었으리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교회에 당신의 부재로 인해 주 일에 배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이라고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잘못된 것이다. 두 가지 모 델 즉, '카리스마 넘치는 영웅 모 델' 그리고 '일벌 영웅 모델' 모 두 잘못되었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의 시간을 더 필요로 한다. 그런데도 가족 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목 사사는 드물다. 대부분의 목회자 는 가족을 희생시키면서 교회의

우상을 만들어왔다. 우상숭배는 항상 파괴적이며 결코 유익하지 않다. 휴가를 보내고, 당신의 우 상을 없애라고 권면하고 싶다. 그 기간 동안 당신은 당신의 창의력을 재충전해야 한다. 배 터리와 마찬가지로 창의적인 에 너지는 종종 재충전이 필요하 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저전력으로 작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려게 당신은 피로감을 이겨내 보려 하겠지만, 그렇다면 창의 성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휴 가를 보내라, 그리고 더 활기차 고 창의적인 리더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재미를 창조하셨다. 재미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부를 무시하는 것이다. 가서 가족과 함께 즐겨라. 우리는 더 이상 구닥다리 같은 목사가 필

요하지 않다. 육체적인 휴식은 영혼에도 좋 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 순히 더 열심히 해야하고, 더 많 은 일을 해야 하고, 그렇게 스스 로를 정당화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안식을 찾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할수록 더 불 안해진다. 진정한 안식은 자신 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 하심을 신뢰할 때 온다. 그것이 속죄의 중요한 요지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일하심이다. 당신이 규칙적으로 쉬지 않는다면, 당신은 예수님의 노력이 아 니라, 당신의 노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해체 시대 사역...

〈3면에서 계속〉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 님의 선한 피조물이 아니라 우 리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발 생한, 그러나 사회에서는 정상 으로 받아들여지는 죄의 패턴 을 말한다. 이러한 패턴의 중심 에 오늘날 해체가 옹호하는 바 로 그 열망, 곧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인간의 열망이 자리 잡고 있다. 해체는 허영심을 부추길 수 있다. 세상의 뜨거운 공기로 당 신을 부풀리게 함으로써 당신 속에서 불안함과 더불어 인정 받고자 하는 열망을 키운다. 이 와 대조적으로 복음은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

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 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 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벧전 5:6).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당 신을 하나님과 함께 높이기 위 해 세상의 기준에서 당신을 낮 추신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 험하기 위해 길거리 신뢰에 대 한 열망을 억제하라. 진단과 치료 목사로서 나는 지금까지 소개 한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해체라는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 과 함께 걸을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적절한 진단은 올바른 치료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교회로부터 상처 받아 고통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독교 변증 서적을 선물한다

면, 그건 진짜 큰 사고를 치는 일이다. 표면 아래에서 그 사람 이 진짜 원하는 것이 자신의 죄 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면, 그런 책은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있 다. 사람들의 실제 동기는 종종 겉으로 말하는 동기와 전혀 다 를 수 있다는 점이다. 종종 “하 하나님에 대한 큰 질문을 가지고” 나를 찾는 사람들이 가진 진짜 원인이 학교에서 느끼는 사회적 압박 또는 사무실에서 피우고 있는 바람 때문인 경우도 많다. 또한 동시에 여러 동기가 복 합적일 때도 있다. 몇 가지 오 래 지속되어 온 신학적 질문, 나쁜 교회로부터 겪은 경험, 길 거리 신뢰에 대한 열망은 모두 의 마음속 가마솥에서 동시에 끓어 넘칠 수도 있다. 좋은 목

사, 멘토 또는 친구가 되려면 일반화시키는 대신 각 상황이 가진 고유성에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다 도전을 의미 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해체 시대의 사 역은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성령에 민감하며, 그리고 내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 결 국에는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는, 투자의 위험까지 각오하는 것이다. 좋은 의사는 환자와 충 분한 시간을 보낸다. 복음의 사 역자로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지혜가 때로는 뚜렷한 치 료 계획을 처방할 수도 있겠지 만, 우리가 바라는 치유의 궁극 적인 한 가지 원천은 언제나 예 수 그리스도 안에만 찾을 수 있 는 바로 그 치료법이다.

pastor.eun@gmail.com

Advertisement for Pastor Park Hee-min's August Harvest Festival. Includes contact info: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and a list of dates and locations for the event.

시론

〈3면에서 계속〉 그리고 이젠 ‘흩어져서’(disperse, diaspora) 가정에서 직장에서 마을 에서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모여서 듣고 배우고 교제’한 힘으로 삶에서 말씀의 적용을 찾아 나가 세상을 치유하는 크리스천의 빛을 사는 것 (diakonia), ‘세상의 빛이 되며 사는 것’, 그래서 세상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예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 안에서 ‘작은 예수’(small christ)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 를 통해 예수를 봅니다. 말로 전도 지로, 동영상으로, 미디어로, SNS 를 통해 예수를 봅니다. 말로 전도 로 예수를 전하는 시대를 지나 이 제는 ‘삶으로 예수를 복음’ 전 해야 합니다. 이젠 정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교 회가 이젠 ‘교회의 빛이 여정 회’(diakonia), ‘세상의 빛이 되며 사는 것’, 그래서 세상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예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 정에서 주변에서 자비와 긍휼이 필 요한 사람들, 억압받고 힘들고 아

파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성도 와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찾아가 어둠을 물리치고 ‘예수 희망’을 전해야 합니다. 찾아가 위로하 고 평강을 전하며 선한 사마리아 인으로 사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통해 ‘예수는 복음’ 전해 집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을 교회 안에 가두 면 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성 도들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훈련해 세상으로 파송 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 회이므로 마땅히 교회도 이런 모

습이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의 교 회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발버 동 쳐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상은 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성도’를 세상은 보고 싶어 합니다. 교회는 ‘모이기 위해 모이 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흩어지 기 위해 모이는 곳’입니다. 세상은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을 보고 싶어!

동부교계 게시판

천국복음제자교육 8월 세미나

국제천국복음선교회 주최 천국복음제자교육 8월 세미나가 2022년 8월 8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예수사랑교회에서 열린다. 참석자들에게는 교재와 점심 식사가 무료로 제공된다.

▲문의: 주예수사랑교회 551-655-4224, 845-499-1921

동부개혁신학교 가을학기 입학 원서 접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탁월함을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학교인 동부개혁신학교에서 2022학년도 가을학기 입학 원서 접수를 받는다. 모집학과는 대학부: 신학과, 여교역학, 대학원: 목회학 석사(M.Div), 기독교교육학석사(M.R.E), 선교학석사(M.Miss), 신학석사(Th.M) 석교학이다.

원서접수마감: 2022년 9월 2일(금) 오후 6시
원서교부처: 동부개혁신학교 사무실 (퀸즈장로교회 내 2층)
입학시험: 2022년 9월 3일(토) 오전 11시, 면접 오후 2시
개강부흥회: 2022년 9월 6일(화)-9월 8일(목) 저녁 8시
▲문의: 학장 정기태 목사 917-733-7387, 사무실 718-463-7163, www.rptseast.org

필그림선교회 - 초등부 전도사 청빙

필그림선교회에서 초등부 예배 교육 및 관련 행정을 담당 할 하프타임 목회자를 청빙한다.

자격조건: 초등부 목회 경험 선호, 영어 가능, 정규신학대학 과정(M.Div) 재학중 혹은 졸업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고백서, 설교영상 2편, 추천서 2부(추천인 연락처 기재)
서류 제출 마감일: 8월 22일(월); 이메일 (HR@NJP.MC.ORG) 온라인 접수 만 가능
▲문의:HR@NJP.MC.ORG

가스펠미션교회(NJGMC) 풀타임 부목사 청빙

뉴저지 Paramus에 위치한 가스펠미션교회에서 함께 동역하실 Full-time 부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조건: 정규 신학교 졸업자, 목회적 소명과 함께 목양사역에 부르심을 받으신 분,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장년 사역 경험자
제출서류: 이력서, 본인 소개서, 신앙고백서, 최종학력 증명서와 목사 안수 증명서
추천자 1분 (추천인 성함,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추천인과의 관계 기재)
최근 1년 내 본인 설교 동영상 CD 혹은 링크 2개
지원방법: 이메일로 서류 발송 scs6565@yahoo.com, sung-jaeyoo@gmail.com
서류 마감일: 8월 21일(주일) - 청빙시 조기 마감 가능
▲문의: info@njgmc.com (718) 541-4797

제10회 청교도복음연구회 세미나 "청교도와 혼인"

청교도복음연구회에서는 결혼 폐기론이나 무용론이 팬데믹 이상으로 난무하는 현 시대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혼인과 성도가 복된 혼인 생활을 영위함의 의미에 대한 세미나를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일시: 2022년 9월 3일 토. 오전 10시 ~11시 30분
Zoom: 당일 오전 9시 30분 사전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 및 초대
주최: 청교도복음연구회 (회장 김필식목사)
주관: 청교도복음가정사역원 (원장 김경옥목사)
▲문의: 718 939-8278, 김필식목사

굿네이버스USA, 소리엘 장혁재 교수 초청

Love Together 나눔 콘서트 실시

'야곱의 축복',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과 같은 CCM 찬양으로 유명한 찬양사역자 소리엘 장혁재 교수가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 USA(회장:이일하)와 함께 나눔 콘서트를 실시한다. 제3세계의 빈곤 아동들을 돕기 위한 나눔콘서트의 일정은 8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30분 필그림선교회(양춘길 목사)에서 시작된다. 8월 7일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백운영 목사)에서 1부에서 3부 예배에서 특별순서를 진행한 후에는 저녁 5시부터 주일 학교 교사를 위한 교사 세미나에서 "교회 교육의 중요성과 문화"에 대해 강연한다. 8월 10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뉴저지 동산교회(윤명호 목사)에서 나눔찬양집회, 그리고 8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뉴욕 IN2교회(심상현 목사)에서 2022 텐스 메이커스 시즌2에서 "2002년생이 물려준다"는 주제로 대학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강연이 계획되어 있다. 8월 13일 토요일 달라스 세미나교회에서 열리는 미주한인침례교 선교대회에서의 특별 순서를 위해 달라스 지역으로 이동하여 14일 세미나교회 주일 예배 특별순서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굿네이버스 USA 김재학 본

부장은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미주의 많은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굿네이버스와 함께하는 소리엘 나눔콘서트를 통해 다시금 모이기에 힘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해외 선교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다시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나눔 콘서트를 통해 지역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라고 말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는 전세계 빈곤아동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의 혜택을 나누어 주기 위해 아동 결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굿네이버스 나눔대사로 활동 중인 장혁재 교수가 미주 지역에서 매년 약 3주 동안 '재능기부' 하며 나눔 콘서트를 진행한다. 해외 아동 결연은 월 \$35로 후원자가 아동과 1:1로 결연을 맺어 아이들에게 교육 및 의료, 영양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장혁재 교수는 올해 9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텍사스 지역에서의 집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
▲문의: 213-447-9898 김재학 본부장
(기사제공: 굿네이버스USA)

할렐루야 2022 뉴욕복음화대회

북한선교와 팬데믹 후 하나님의 항해법

할렐루야 2022 뉴욕복음화대회가 뉴욕교협(회장 김희복 목사)주최로 지난 7월8일(목)부터 31일(주일)까지 프라미스교회(허연행 목사)에서 "북한선교와 팬데믹 후 하나님의 항해법"이라는 주제로 4일간 개최됐다. 강사로 임현수 목사(토론토큰빛교회 원로, 북한선교사)와 최혁 목사(LA주안애교회)가 초청되어 말씀을 전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규모는 다소 축소되었으나 다시 팬데믹 이전의 대회를 회복해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 대회였다.

임현수 목사는 첫째 날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이유'(시편 119:67, 71), 둘째 날 '통일보다 시급한 비상사태'(사도행전 1:6-8)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북한선교를 진행하던 중 2015년 1월에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2017년 8월에 풀려난 바 있는 임현수 목사는 '북한의 위상과 작업과 영적인 실태'에 대하여 나누고, 북한 억류 기간의 경험을 간증하며 "그 시간



할렐루야 2022 뉴욕복음화대회 폐회 후 단체 사진 촬영

이 육체적으로 어려운 시간이었으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으며 고난 가운데서 정결케 됨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탈북민 지원 현황에 대하여 나누며 앞으로 나아가 북한선교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 교계의 세속화와 태만을 지적하며 "굶주리고 있는 북한 형제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도와야 하며 다시한번 영적 각성이 미국과 한국 교계에 일어나야 한다. 통일보다 더 시급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며 영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있으며 참담한 모습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제는 실제로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혁 목사는 셋째 날(토) 저녁에 '인생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테바(1)'(행 27:1-5), 넷째 날(주일) 저녁에 '인생의 속도를 조절하시는 하나님-테바(2)'(행 27:6-8)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최혁 목사는 사도바울의 삶을 통하여 팬데믹과 정치, 경제의 혼돈으로 방향하는 시대에 성도들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신앙의 자세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방주의 히브리어인 '테바'가 뜻하듯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속도를 스스로 정할 수 없으며 나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인생의 항해사이



이용걸 목사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이용걸 목사 '사모 특강'

"목사의 성공이 사모의 성공"

RCA 뉴욕한인목회자협의회(AKRC, 회장 박희열 목사)는 '여름 목회자 세미나'를 7월25일(월) 오전 9시30분부터 뉴욕실로암교회(담임 목사)에서 열었다. 이용걸 목사는 "세미나에 여러 부부들이 참가한다기에 사모 특강 계획을 잡았다"며 "사모들을 위로하고, 목사와 사모가 협력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이용걸 목사는 야모스 3:3을 본문으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

겠으며"라는 주제로 사모의 역할과 어려움에 대해 나누고, 사모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내용도 전했다. 특히 "사모는 자기 성취감을 내려놓아야 한다. 성취감은 목사에게서 찾아야 한다. 목사가 성공하면 사모도 성공이고, 목사가 실패하면 사모도 실패하는 것이다. 성공 여부는 목사에게 달려있다. 어떻게 하든지 목사가 잘하도록 세우며 내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이길호 목사 원로목사 추대 및 차석희 목사 담임목사 위임식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길호 원로목사 추대 및 차석희 담임목사 위임

"위탁하는 삶" "부탁하는 삶"

뉴욕성실장로교회 이길호목사 원로목사 추대식과 차석희 목사 담임목사 위임식이 7월 31일(주일) 오후 6시 KCS Community Center에서 열렸다. 1부 감사예배, 2부 차석희 목사 위임식, 3부 이길호 목사 원로목사 추대식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길호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1부 감사예배는 이상만 목사(베이직교회) 기도, 허민수 목사(뉴저지열린문교회) 성경봉독, 김성국 목사(KAPC 부총회장) 설교로 진행됐다. 김성국 목사는 그날까지 그가 능히"(딤후 1:9-1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바울은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것을 위탁하는 삶(12절)과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잘 증거하라는 부탁하는 삶(14절)을 살았다"고 전하며 "개혁주의 신학을 하고 말씀을 옮겨 가르친 진정한 목회자요 교수로서의 이길호 목사의 걸어온 길은 눈물 골짜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삶을 보여주었고 그 아름다운 행보에 차석희 목사에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부탁하고 복음을 부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차 목사는 이 부탁을 잘 받아 잘 지키는 목사가 될 줄 믿고 당회원과 온 교인들은 차 목사의 부탁을 기쁘게 받아들여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는다"라고 전했다. 2부 차석희 목사 위임식은 위임국장인 황상하 목사의 인도로 위임목사 서약과 교인의 서약 후 조문취 목사(온누리장로교회)

의 권면과 박희근 목사(뉴욕동원장로교회)의 축사가 있었으며 여성중앙(지도 김혜은집사)의 축하 찬양 순서로 진행됐다. 3부 이길호 목사 원로목사추대는 노회장인 신철웅 목사가 인도했으며 당회 서기인 김인철 장로가 추대사를 낭독하고 노회장 신철웅 목사가 공표했다. 장기수 목사(뉴저지마누엘교회)의 기도 후 추대 패를 수여했고 김남수 목사(아가페장로교회)의 축사와 뉴욕동노회 목사의 찬양, 정진운 장로의 광고, 이길호 목사의 감사의 말씀으로 이어졌으며 조영길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길호 목사는 1988년부터 담임목사로 33년간 섬겼다. 이 목사는 "전도사로 시작한 40여 년 동안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사모가 없었으면 오랜 사역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좋은 처를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사모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또한 "3년 전에 후임 목사가 와서 목회할 수 있도록 준비한 교회 건물이 지난주 7월 6일 신인을 받아 1-2주 안에 클로징 할 예정"이라고 기쁜 소식을 전했다. 개혁주의 신학을 중심으로 목회자요 신학자인 이길호 목사가 걸어온 목회를 기본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새롭게 주신 비전을 품고 나아가 차석희 목사의 목회 비전을 기대한다.
(홍현숙 기자)



썸머캠프에 참여한 어린이들 단체사진

살룻장로교회, 전유니버시티 썸머 캠프 실시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전유니버시티 썸머캠프가 학문적인 전문 기관인 전(Chun)유니버시티에서 살룻장로교회와 함께 지난 7월 25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진행됐다. 대부분 살룻장로교회 교우들의 자

녀들이 출석하여 한국어와 문화, 태권도, Art 1, 2와 요리 시간을 통하여 한국 문화를 재미있고 흥미있게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제공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소리엘 콘서트 포스터



제36회 크리스찬 문학 신인상 시상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미주크리스천문협 크리스찬문학 신인상 시상식

“빛을 든 이들의 초점이 예수그리스도가 되길..”

미주크리스천문협(회장 송종록 목사)에서 주최한 창립 22주년 제36회 크리스찬문학 신인상 시상식이 7월 30일(토) 오전 10시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이지원 전 부회장 사회로 시작된 이날 시상식에서 정지윤 이사장이 인사 및 심사과정 경과보고를 했다. 정지윤 이사장은 “아름다운 계절에 문협 39주년 맞이해서 신인상 시상식 만남의 축제의 장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3월15일부터 5월31일까지 제출된 작품으로 심사하게 되었다. 좋은 작품들이 많았다. 시 11명, 수필 8명, 생활수기 2명, 선교 1명이 작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작품심사평이 있었다. 방동섭 목사가 시부문 심사평을 정지윤 이사장이 대독했으며, 하정아 수필가가 수필 및 생활수기 심사평을, 정지윤 이사장이 선교부문 심사평을 했다. 이어 최학량 목사(자문위원), 임영호 목사(기독문인협회 회장)가 축하했으며 문아리 목사가 특별시를 낭송했다. 이어 신인상 시상식이 있었으며 수상

자들이 시상송했다. 한편 시상식 전에 송종록 회장 사회로 열린 1부 예배는 김철민 장로(CMF대표)가 기도했으며 진복일 선교사가 특송을, 최수일목사(월드비전대학교 학장) 축도로 마쳤다

말씀을 전한 김기동 목사(세리토스총만교회 담임)가 “빛을 든 사람(눅 1:2-4)”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여기모인 자들은 빛을 든 사람들이다. 빛을 든 사람의 초점은 예수그리스도이다. 예수가 우리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빛을 들었으면 한다.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의 글로 인해 예수님이 어떤분이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예수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제36회 크리스찬문학 신인상 수상자들이다. △시부문 가작: 최선미, 박혜경, 장려상: 송재경, 나승희, △수필부문 당선: 김혜미, 가작: 이리나, 선교부문 당선: 양태철, △생활수기 부문 당선: 한병희 <박준호 기자>

라크마 평화음악회 연다

아름다운 하모니에 평화와 희망, 우정의 메시지 담아

라크마(대표 최승호, 음악감독 윤임상 교수) 심포니 오케스트라 & 코랄 (LAKMA Symphony Orchestra & Chorale)이 오는 8월6일(토) 오후 7시에 다운타운 Walt Disney Concert Hall 에서 ‘우정과 하모니의 연합(Unified in Friendship & Harmony)’이란 주제를 갖고 평화음악회를 개최하게 된다. 이 음악회는 특히 한인 여성 2세대들이 중심이 된 Women Cross DMZ 그룹의 활동을 협력하고 홍보하는 뜻깊은 평화 음악회가 될 것이다. 이번 음악회는 2019년 이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2년간 공연이 중단되었다가 3년 만에 재개되었다.

윤임상 교수는 “근래 들어 평화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었다”며 “이번 음악회는 평화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우정의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먼저 평화의 메시지에 대해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 평화를 노래할 때 이다. 올해 초부터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온 세계는 긴장을 하고 있다. 또한 우리민족의 뼈아픈 과거의 전쟁은 아직도 정전되지 못한 채 올해로 정전 69주년을 맞으며 휴전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민족이 갖고 있는 평화에 대한 갈망은 그 어느 민족보다 강하게 표현되어 왔으며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음악을 통해 메시지로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연주되는 ‘Dona Nobis Pacem(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는 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였던 영국의 민족주의 작곡가인 본 윌리엄스가 작곡했다”며 “이 곡은 1936년 쓰여진 곡으로 세계 2차 대전의 징조가 보이자 전쟁의 참상을 표현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가슴

으로 전달하고자 만든 곡이다. 본 윌리엄스는 전쟁의 비참함을 스스로 체험한 사람이기에 이 곡이 전쟁의 암울함을 실제 체험되어지는 듯한 현장성이 있는 음악으로, 그리고 평화를 호소하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이번 공연의 두 번째로 전하게 되는 희망의 메시지는 로시니의 곡이다. 13세기 스위스의 민족 영웅이자 투사인 윌리엄 텔이 오스트리아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고 오스트리아 압제에 저항하며 스위스 민족에게 희망을 안겨준 메시지를 중심으로 로시니가 오페라를 작곡했는데 그중 서곡이 연주가 되며 김경희 라크마 부지휘자가 지휘를 하게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그리고 아리랑이 연주되며, 일본의 압제에 저항하며 한민족에게 영원한 희망을 안겨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일대기를 뮤지컬로 표현한 것 중 ‘평화의 나라’, ‘애국 행진가’를 Dosan Popper Quintet 이 연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교수는 “이번 공연의 마지막 메시지는 ‘우정’이다”라며 “Special Moment로 지금도 전쟁에 큰 공포속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기억하며 짧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를 음악으로 표현하며 우정을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주에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라크마 합창단과 네 명의 솔리스트인 소프라노 Svetla Vassileva, 알토 Anna Pflieger, 테너 오위영, 베이스 Boris Martinovich, 가 함께 한다. 공연은 오후 7시에 시작되며 관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공연이 마칠 때까지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박준호 기자>



지난 2019년 라크마주최 음악회 장면



감신동문화유회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감신대 미서부지역 동문회 2022년 아우회 열려

사랑과 친교의 시간으로 재추진

감신대 미서부지역 동문회(회장 김중환 목사) 2022년 아우회가 지난 7월 25일(월) 오전 11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포인트 퍼민 공원에서 열렸다. 아우회에서 드린 예배는 오경환 목사(시온연합감리교회)의 사회로 열려 김태호 목사(은혜의 강 연합감리교회)의 기도, 이인기 목사(온전한 휴식)이란 제목의 설교, 이재형 목사의 축도로 진행되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사랑과 친교의 시간을 갖고 참가 동문들을 소개하는 한편 선물 뽑기 등으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아우회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감독을 지낸 이종복 목사, 미 동부지역에서 연합감리교 감리사로 사역하다 은퇴한 후 최근 서부지역으로 이주한 김성찬 목사 등이 참석하여 오랜만에 만난 동문 선배들과 인사를 나눴다. 한편 동문회는 오는 11월 7일(월) 장학기금 모금골프대회, 12월 11일(주일) 성탄절 연합음악예배, 내년 2023년 1월 23일(월)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를 계획하고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머무는교회 설립 3주년 감사예배

머무는교회(담임 김문수 목사 1345 S. Burlington Ave. LA, CA 90006) 설립 3주년 감사예배가 7일(주일) 오전 11시 예배 시간에 갖는다. ▲ 문의: (213)909-2820

은혜의 한마당 간증 및 찬양집회

아이에아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현 목사)는 은혜의 한마당 간증 및 찬양집회를 7일(주일) 예배시간에 갖는다. 1,2부 예배 시간에는 이지선 교수(한동대학교) 간증집회로 열리며 오후 1시30분 박종호 장로 ‘초심’ 찬양집회를 갖는다. ▲ 문의: (808)488-3018

남가주사랑의교회 2022 여름성령축제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는 2022 여름성령축제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히 4:16)’ 주제로 12일(금)부터 14일(주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12일(금) 오후 7시30분, 13일(토) 오전 7시 오후 7시, 14일(주일) 1-4부예배 ▲ 문의: (714)772-7777

울타리선교회 제23회 연례기금모금 음악회

울타리선교회(대표 나주옥 목사)는 제23회 연례 기금모금 음악회를 15일(월) 오후 7시30분 월트디즈니콘서트홀에서 갖는다. 이날 음악회는 LA 신포니에타 오케스트라(뮤지디렉터: 김용재), 피아니스트 루퍼스 최, 바이올리스트 유진 우고스키, 플루티스트 나선화, 무대예술인그룹 극단 시선(대표 클라라 신), 미주여성콰이어(지휘 오성애 권사)이 출연한다. ▲ 문의: (213)819-3300

미주한인침례교회 총회 IMB 선교대회

미주 한인침례교회 총회(총회장 이행보 목사)와 IMB에서 주최하는 미주한인침례교회 선교축제가 ‘함께 열방을 향해’라는 주제로 8월 12일(금)부터 14일(주일)까지 세미한교회(담임 이은상 목사)에서 열린다. 주 강사로는 이은상 목사, Dr. Paul Chitwood IMB총재, 고명진 목사, 허보통 선교사, 토니 리 선교사 등이다. ▲ 문의: (972)446-0178

달라스연합교회 창립 56주년 기념주일 및 임직식

달라스연합교회(담임 이요한 목사) 창립 56주년 기념주일 및 임직식이 14일(주일) 오전 11시에 갖는다. ▲ 문의: (972)245-1419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이지선 집사 간증집회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담임 한의준 목사)는 이지선 집사(한동대 교수, ‘지선이 사랑해’ 저자) 간증집회를 10일(수) 오후 7시에 갖는다. ▲ 문의: (808)526-7244



LA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여름 각곡의 밤 공연이 마친후 출연자들이 인사하고 있다

LA 한국문화원 한여름 각곡의 밤

한국과 이태리 두 나라 가곡 함께 선보여

LA한국문화원(원장 정성원)은 한여름 가곡의 밤 공연을 7월 29일(금) 저녁 7시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LA이태리 문화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한국과 이태리 두 나라 가곡을 함께 선보이면서 양국 문화원의 상호교류, LA 지역사회와의 관계 증진 그리고 한국 가곡에 대한 미 현지인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나폴리의 가곡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사랑하는 사람을 찬양한 지오바니 카푸로(Giovanni Capurro) 작사, 에두아르도 디 카푸아(Eduardo di Capua)의 1898년작 “오 솔레미오”(O Sole Mio: 나의 태양), 클래식 이태리 가곡의 대표곡으로 일컬어지며 주제패 지오르다니(G. Giordani)가 18세기에 작곡한 “까로 미오 벤”(Caro Mio Ben: 나의 다정한 연인) 등이 불려졌다. 또, 한국 가곡으로는 1937년 한국 최초로 바리톤 독창회를 개최한 성

악가이자 작사/작곡가인 김연준 선생의 1973년작 “청산에 살리라”, 시조시인으로 유명한 가람 이병기 선생의 가사에 이수인 선생이 곡을 쓴 동요이자 가곡인 1960년작 “별”, 정치 외교학도에서 음악가로 변신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외교관이자 작곡가인 변훈 선생의 1952년작 “명태” 등이 선보였다.

이번 콘서트에는 현재 LA 오페라와 LA 마스터 코랄 정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코트니 테일러, 테너 토드 스트레인지를 비롯해, 작년에 정단원으로 새롭게 합류한 한인 베이스 안민철, 현재 LA 오페라와 LA 마스터 코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여선주, 최근 LA 오페라 ‘골드 마운틴’에 출연한 신에 소프라노 레이첼 여,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맥신 박 등의 다양한 성악가들이 출연했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릴리 재단으로부터 100만불의 후원금을 받았다

월드미션대학교, 릴리 재단으로부터 100만불의 후원금을 받다

디지털 시대에 합당한 ‘영성형성 매뉴얼’ 만들 것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가 릴리 재단 (Lilly Endowment Inc.)에서 100만불의 후원금을 받게 되었다. COVID-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릴리 재단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 (Pathways for Tomorrow Initiative)를 제안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교회와 신학교가 상호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월드미션대학교 관계자는 “미래는 디지털 사회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많은 교회들과 학교들이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에 많은 힘을 쏟고있다. 미래의 사역을 위해서 이러한 노력은 당연하다. 그러나 교회와 신학교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영성’이다”라며 “이미 언컨택트 시대가 열렸고, ‘불편한 소통’보다는 ‘편리한 단절’을 선호하는 시대에 어떻게 영성을 강화할 수 있을까? 불안과 편리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 시대에 영성의 자리는 어디인가? 온라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잘 교육하고, 헌신적이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끌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월드미션대학교는 ‘영성형성’에 대한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릴

리 재단은 이를 승인하고 펀드를 제공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월드미션대학교는 금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디지털 시대에 합당한 ‘영성형성 매뉴얼’을 만들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영성형성’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할 것이다. ‘영성형성’에 대한 성서적 토대, 신학적 토대, 역사적 토대, 철학적 토대, 기독교의 영성 전통, 현대 영성, 각 학과에 적용할 수 있는 영성연구, 그리고 영성을 모범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단체들에 대한 연구 등을 할 것이다. 또한 현장의 목회자들과 협업을 하면서 현장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 것이다. 나아가 신학교육에도 적용할 것이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질 ‘디지털 시대의 영성 매뉴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교회 목회사역은 물론 신학교육에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긴급하고도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월드미션대학교는 5년간 100만불의 펀드를 사용할 것”이라 말했다. <기사제공: 월드미션대학교>

사도행전적 교회 지향하는 성도들, 직접 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정기 신나는교회 목사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달 28일 한 미자립 교회에 냉난방 기기가 설치됐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겹게 목회하던 교회엔 그야말로 희소식이었다. 교회 성도들은 지금껏 여름이면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며 미소를 지었다.

냉난방 기기가 설치된 곳은 비단 이 교회가 아니다. 총 26곳의 미자립 교회에 기기가 설치됐다. 소요된 재정은 약 5300만원이다. 해당 교회들은 모두 코로나19 여파로 재정적 여건이 좋지 못해 냉난방 기기가 없거나 노후화됐었다. 적절한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 자연스레 목회도 힘이 빠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 같은 문제 해결 중심엔 신나는교회와 이정기 담임목사가 있었다. 이목사는 매년 다양한 방식으로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선교 음악회와 선교 바자회 등을 열어 1억~1억5000만원의 선교비를 모금한다. 이어 6개 정도의 미자립 교회를 선정해 지역별로 40~70명이 한 교회를 섬기고 온다. 지원하는 방식은 예배당 수리, 페인팅, 가가호호 방문전도, 미용 봉사, 어르신들 초청 식사대접 등 다양하다. 코로나19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적잖은 금액의 선교비를 보내주기도 했다. 이목사는 “미자립 교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모아 섬기려고 한다”며 “더 많은 교회를 지원하지 못해 아쉽지만 앞으로도 새 지원방안을 마련해 미자립교회를 위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목사의 이 같은 목회의 근

간엔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한 지향이 담겨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나눔, 전도, 말씀, 기도, 성령, 회개, 용서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 따라 이목사는 나눔과 전도를 실천하는 목회에 힘쓰는 생각으로 미자립 교회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면서 이목사는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7대 실천운동을 강조했다. 자신이 하고 있는 나눔 목회가 개혁주의 생명신학 등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고 다시 부흥하게 할 수 있음을 믿는다”며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강조하는 것과 7대 실천운동이 사도행전 교회에 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 없이 결코 부흥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도행전적 교회 지향 및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기반한 이목사의 목회는 미자립 교회의 지원에만 있는게 아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성도들의 영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성경암송대회, 전교인QT, 말씀 읽기, 말씀 필사 운동 등을 진행한다. 가령 창세기를 읽으면 시험을 보게 한다. 그리고 시험을 본 성도들은 골든벨 행사에 참여한다. 골든벨을 울리면 15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선물로 준다. 얼마전에는 두 사람이 골든벨을 울렸다고 한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며 참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에 교회에서 기도가 소리가 끊이지 않게 힘쓰고 있다. 수많은 작정 기도회가 있고, 수백명의 중보 기도팀이 있다. 일주일에 교회에 와서 1시간 이상 기도하는 느헤미야 일



천명 중보 기도팀을 모집하고 있다. 전도에도 힘쓴다. 수십명의 전도팀들이 지역의 믿지 않는 가정들을 방문하며 전도 활동을 펼친다.

이목사가 성도들에게 틈만 나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실천’이다. 초대교회가 아름다웠던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며 “예수님은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했는데, 이는 실천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경은 역설적이다. 죽어야 산다고 한다. 버려야 얻는다고 한다. 비워야 채워진다고 한다.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한다. 섬겨야 큰 자가 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설립 40주년이 된 신나는교회는 다른 교회와 차별화된 특성이 있다. 예배당이 두개다. 화성 병점에 병점채플과 동탄2 신도시에 동탄채플이 있다. 교회 두개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다고 한다. 지금은 여러개의 교회를 생각하고 있다. 병점채플 들어가는 입구 왼쪽은 오백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벽면에 예수님이 환하게 웃고 계시는 이미지를 도자기 타일로 만들어 붙여 놓았다. 그 옆에 ‘주안에서! 내 삶을 신나게! 세상을 신나게!’라는 글귀도 새겼다. 이목사는 “하나님께 웃음드리는 교회가 되자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태아생명 보호 위해 업무협약 (재)주사랑공동체·아름다운피켓

(재)주사랑공동체(대표 이종락 목사·오른쪽)와 아름다운피켓(대표 서윤화 목사)은 지난 29일 태아생명 보호운동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태아의 생명과 태어난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태아생명 보호운동(Pro-Life) 캠페인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위기임신 여성의 상담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 및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 에 보호된 생명은 모두 엄마로부터 지켜진 아기가며, 아름다운피켓과 협력해 모든 태아가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윤화 목사도 “우리 모두가 태어났던 것처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사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주사랑공동체는 위험한 장소에 유기돼 죽어가는 아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2009년 12월 국내 최초로 베이비박스를 서울시 관악구 난곡로 교회 담벼



락에 설치했다.

현재까지 2000여명의 아기 생명을 구조했다.

400여 명의 미혼모 가정에 매달 양육키트와 생활비, 병원비, 주거비 등을 3년간 지원한다.

‘웨슬리 신앙 본받자’ ...웨슬리 교단 지도자들 한자리에 오는 19일 전·현직 교단장, 대학총장 등 학술 간담회

웨슬리언 신앙을 추구하는 국내 6개 교단 소속 전·현직 교단·교회 지도자와 신학대 총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감리교와 성령신학 창시자인 존 웨슬리(John Wesley)의 성결(성화)복음 운동의 확산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한국웨슬리언교회지도자협의회(웨협·대표회장 박동찬 목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12층에서 ‘제1차 한국웨슬리언 지도자 간담회’를 연다. 참여교단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와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

성),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나사렛성결교회(나성), 구세군 대한본영 등 6개 교단 소속 전현직 교단장 및 소속 신학대 총장 등이다.

1부에서는 이영훈 기하성 대표총회장의 설교와 조진호 전 구세군대학원대 총장의 선언문 낭독, 웨협 창립발기인 양기성 웨협 사무총장의 조직 역사 보고 등이 예정돼 있다. 2부에서는 ‘웨슬리운동의 연합과 일치’를 주제로 한 간담회가 이어진다. 나세웅 전 예성총회장과 이영훈 총회장, 김진두 전 감신대 총장, 박동찬 대표회장, 청주신학교 학장인 양기성 웨협 사무



총장 등이 참여한다.

양 사무총장은 “교단장과 대학 총장 등을 망라한 웨슬리언 교단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 자리에서는 내년 20주년을 맞이하는 ‘웨협 20주년 세계대회’ 개최를 위한 밑그림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스러운교회 여전도회, 바자회로 개인수술 후원 우크라이나 난민과 선교사도 각 2000만원 지원

사랑스러운교회(배만석 목사)는 2일 바자회 수익금 7000만원을 개인수술 지원을 비롯해 이웃과 열방을 위해 전액 사용했다고 밝혔다. 사랑스러운교회 연합여전도회는 바자회를 열고 70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마련했다. 교회는 개인수술 지원, 우크라이나 난민 긴급구호, GMS선교사 지원에 각각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을 후원했다.

실로암안과에 전달된 개인수술 지원 후원금은 앞을 보지 못하는 100명의 수술을 지원에 사용된다. 선교사 지원금은 코로나로 사역지에서 철수한 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전달된다. 여전도회는 15년째 바자회를 열고 그 수익금을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다. 사랑스러운교회는 어르신



들과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밥차와 반찬나눔, 지적장애아 사역 등도 하고 있다.

2년간 성경 필사 대장정... 성도 300여명 완필 '기적' 우리 성광교회 '감동의 필사'

코로나19 팬데믹이 한국교회에 던진 가장 큰 충격은 ‘멈춤’이었다. 감영 확산 방지책은 목표와 강령한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대면 중심의 예배와 각종 집회, 모임이 멈췄다. 멈춤이 지속되는 동안 온라인으로 옮겨진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선 그간 눈에 띄지 않던 영적 구멍이 드러났다. 하지만 31일 경기도 우리 성광교회(김희수 목사)에서 만난 성도들의 이야기 속엔 그 구멍을 메우고도 남을 감격과 은혜가 엿보였다.

“처음 성경 필사 애길 들었을 때 제가 완필할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 했어요. 군대에서 불침번 서면서 통독에 도전하고, 생활관에서 필사를 도전했을 때 중간에 멈추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이창재씨·26)

“팔순 넘도록 장로로 신앙생활 해오면서도 필사를 완수해 보진 처음이었습니다. 지난 2년여간 아내와 함께 나란히 3번씩을 완필했어요. 이런 감동을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임용민 장로·81)

이 교회에선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 전반이 극심한 위축을 겪었던 2020년 9월부터 성도들이 손으로 성경을 쓰기 시작했다. 김희수(67·사진)목사는 “대면 교제가 중단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게 되면서 ‘성도들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 나눌 방법이 뭘까’ 고민하던 중 필사를 떠올리게 됐다”고 회상했다.

그렇게 ‘성경 필사 대장정’이란 이름으로 1300여명이 장정에 나섰다. 짧은 기간 집중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리 없는 도전 앞에 갖가지 난관들이 길목을 막았다. 유학 중인 딸을 뒷바라지하는 엄마이자 병환 중에 있던 아버지를 모시던 딸, 선거를 앞둔 정치인의 아내로 분주하게 살던 박주영(55) 권사에게 성경 쓰기 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하지만 그는 위기에 봉착할수록 필사적으로 펜을 붙들었다.

“3개월여간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로 이어지는 딸의 연주회에 동행할 땐 항공기 수하물 추가 요금을 내면서도 성경 필사 준비물은 챙겼어요. 숙소에서 새벽에 일어나 필사할 때도 저는 성경을 쓰고 있었지요. 연주회 일정 중 아버지께서 별세 하셨을 땐 사방으로 노력해도 급히 귀국할 수 없어 ‘임종도 못 본 딸’이란 죄책감이 말도 못 했어요. 성경을 쓰며 기도하는 동안 기적처럼 하늘길이 열려 발인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 처음 성경 필사에 도전했던 이정용(64) 집사는 지금까지 한글(2회)과 영어(1회) 성경을 모두 완필했다. 이 집사는 “사망 부도, 아버님 별세 등 삶의 굴곡진 순간마다 낙망할 수 있었지만, 말씀을 붙들었을 때 거뜨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성경 필사본을 딸과 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며 말을 거쳤다. 최은혜 집사는 “한 우를 키우는 농장도 가봤는데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었다. 식품도 먹어보니 눈이 번쩍 뜨이는 맛”이라며 “가족 같은 성도들과 아이들이 먹을 거니가 간간하게 골랐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판매한 강원도 양구 지역 사과와 멜론은 확보 수량을 훌쩍 뛰어넘어 재임고까지 진행했다.

성도들이 함심으로 만든 홀쇼핑 영상은 6일 교회 9교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된다. 성도들은 문자로 받은 링크에서 방송을 보고 상품을 주문할 수



섬과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눈과 입, 손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동안 기도의 열매를 거두고 회복을 경험한 이들도 수도룩하다. 임 장로는 매일 새벽기도 후, 점심과 저녁 식사 후, 잠들기 전마다 필사를 하다 기도 제목이었던 손녀딸의 공무원 합격 소식을 들었고, 이씨는 학교 졸업 후 영상 콘텐츠 시장에 머물러 있던 습관을 성경 필사로 바꿔가며 스스로 집중한 끝에 지난 3월 의과학연구소에 취업할 수 있었다. 지난달 1일 취임한 주광덕 남양주시장의 아내인 박 권사는 “나를 통해 신앙의 물꼬를 튼 남편이 지금은 나보다 큐티(QT·말씀묵상)에 더 집중한다”며 “가족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전했다.

교역자부터 일반 성도까지 필사를 완수한 이들은 300여명. 김 목사는 “창립 50주년을 맞은 해에 교회가 말씀으로 무장한 기드온 300용사를 얻은 셈”이라며 “교회 로비에 필사본 전시회를 마련해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를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단 교파 초월한 신학생 연합 국내 18개 신학대학교 총학생회 및 원우회 참여

전국신학대학교(원) 학생연합(KATS, 대표 최영섭 목사)이 오는 22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사역을 시작한다. KATS는 감리교신학대 성결대 장로회신학대 총신대 침례신학대 한세대 등 국내 18개 신학대학교 총학생회 및 원우회가 한국교회 공동의 과제인 상호 존중과 자성

과 섬김 실천을 하기 위해 2019년부터 연합 활동을 해 온 기관이다.

출범식에는 해당 신학대가 속한 교단의 총회장, 신학대 총장, 기독교계 연합기관 대표, 전·현직 총학생회 회장단과 임원단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KATS는 출범식에서 회원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오직 상



호 존중과 이웃 섬김 실천 신앙에 집중할 것을 결의하며 새로운 방향 전환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연합의 출범을 한국교회와 사회 앞에 공식적으로 보고할 계획이다.

“이보다 비쌀 순 없다” 는 교회 홈쇼핑 년 뭐니 신촌성결교회 상식 깬 홈쇼핑 사역

서울 마포구 신촌성결교회(박노훈 목사)에 위치한 신촌 미디어 랩. 이곳엔 때때로 홈쇼핑이 진행 중이다. 때론 좋은 한우가 보이는데 이를 판매하는 쇼호스트의 멘트가 특이하다. “다른 곳과 가격은 비교하지 마세요. 시중가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저렴한 게 특징인 홈쇼핑에서는 듣기 힘든 말이다. “모든 상품의 가격에는 선교비

가 포함돼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해 주세요.” 신촌성결교회가 국내 단기간에 앞두고 마련한 홈쇼핑, ‘이보다 더 비쌀 수 없습’ 녹화 현장이다.

“이보다 더 비쌀 수 없습”은 단기간에 대상의 지역교회 성도들이 직접 만들거나 키운 상품을 신촌성결교회가 팔고 그 수익금을 선교비로 사용하는 사역이다. 박현일 신촌성결교

회 부목사는 1일 “공들여 키운 농축산물의 판로를 찾지 못한 농어촌교회 성도들의 집을 털어주고 현장 봉사는 물론, 물로도 후원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기획한 아이디어”라며 “올해는 단기간에 가는 강원도 횡성의 한우, 오미자청, 수제 된장과 고추장을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상품기획과 촬영 편집 자막 진행은 모두 신촌성결교회 성도와 목회자들이 직접 참여했다. 홈쇼핑 방송을 열심히 공부하고 전문가에게 자문한 끝에 영상이 7분을 넘어가면 시청자

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것도 배웠다. 한우를 판매하게 된 이설화, 박형미 집사는 녹화 2주 전부터 횡성한우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대본을 만들고 거울을 보며 자연스러운 제스처를 연구했다. “저희가 실수해서 횡성 지역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키운 한우 판매량이 저조하면 안 되잖아요. 사정상 단기간에 현장에 직접 가지는 못하는데 이렇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가격은 비싸더라도 질 좋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5월부터 4차례 현장 답사

를 거쳤다. 최은혜 집사는 “한 우를 키우는 농장도 가봤는데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었다. 식품도 먹어보니 눈이 번쩍 뜨이는 맛”이라며 “가족 같은 성도들과 아이들이 먹을 거니가 간간하게 골랐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판매한 강원도 양구 지역 사과와 멜론은 확보 수량을 훌쩍 뛰어넘어 재임고까지 진행했다.

성도들이 함심으로 만든 홀쇼핑 영상은 6일 교회 9교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된다. 성도들은 문자로 받은 링크에서 방송을 보고 상품을 주문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힘든 어르신 성도를 위해서 교회 로비에 방송을 틀어놓고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수익금은 오는 11~13일 진행할 횡성 단기간교와 캄보디아 현지 어 교재 제작에 쓰인다.

박노훈 신촌성결교회 목사는 ““이보다 더 비쌀 수 없습”은 도시 교회와 농어촌 교회가 상생하고 성도들이 재미있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열리는 단기간교 현장에 사랑과 희망을 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14)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물질을 통한 동역의 아름다움

팬데믹 기간에 많은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떠났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수많은 정보들을 분석하여 가장 많은 이유를 MIT 학자들이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떠난 가장 큰 이유가 돈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회사의 좋지 않은 문화가 사레비보다 10배 이상 중요하다고 발표하였다. 둘째는 불안정한 자리와 재조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회사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는 새로운 혁신의 강도가 높을 때에 큰 부담을 앓고 탈진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실적이 인정받지 못할 때에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에 떠난다는 것이고 다섯째는 Covid-19 에 잘 대응하지 못한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만큼 세상에서도 돈이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선교에서는 돈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교에 돈은 필요하다. 이 말은 현실을 살아가는 많은 선교 동역자들이 깊이 공감하는 말이다. 선교사들에게도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돈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흔들리는 모습을 이따금 보게 된다. 돈 때문에 선교를 하는 사람은 없지만, 돈이 없어 선교를 그만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미남침례교 선교교회 (IMB) 에서 2017년 발표한 글에는 사명감의 부족, 영적 미성숙, 건강악화, 자녀들

문제, 성적인 죄로 인하여 선교사가 선교지를 떠난다고 지적하였다. 사실은 자녀들의 교육을 시킬 수 없어서, 재정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선교지에서 생활할 수 없어서 선교지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것은 결국 사명감의 결여로 보인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선교와

재정에 대한 이해가 교회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바른 재정관을 가져야 바른 선교의 동역을 할 수 있다. 재정에 대한 가장 큰 이해는 모든 재정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유권의 이전이 우선되어야 선교를 함께 할 수 있다. 아직도 나의 것을 가지고 선교를 한다고 생각할 때에 진정한 선교 동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로부터 재정적 지원과 인적 지원을 받았다.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받은 재정 도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빌 4:10-2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교회를 떠나 선교여행을 나섰을 때부터 나를 항상 기억하고 기뻐하셨을 때에 지원해주셨습니까. 그러다가 생각을 하였지만 하지 못하다가 이번엔 나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나는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원할 수 있

록 한 것은 여러분들이 헌신의 비밀을 알게 된 것 같아 참 기쁩니다. 내가 감옥에 있어서 궁핍하기 때문이나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나 잘 적응하고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어렵고 비천한 처지에도 잘 견디고 풍부할 때는 풍부한 대로 잘

처하는 비결을 이미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나의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나누게 되었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유럽의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나를 도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두 번씩이나 내가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도운 것에 대해 나에게서 큰 선물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유익이 있을 줄 알기에 나는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보낸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재정 지원을 받음으로 풍족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나에게 개인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

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비 지원을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개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을 주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선교비를 보내는 교회에서나 개인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소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 주신 주인의 뜻에 합하게 철저히 청지기의 자세로 겸손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드려진 선교비는 너무 넘치지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나누어지는 것이 그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나도 이런 상황을 알고 나서도 선교사가 되겠다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tent maker 사역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다. 교회는 이런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에도 사명 때문에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키워야 하지만 동시에 은퇴 후의 삶과 같은 선교사 돌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와 미주한인교회는 선교사의 파송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이제는 파송된 선교사의 케어에도 그만큼 신경을 써야 할 시기이다. 선교사 자신들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더라도 모든 것을 책임지실 주님을 믿고 나가야 할 것이다. 파송한 교회는 그런 선교사를 은퇴할 나이가 되었다고 선교비를 끊으면서 모른 채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뜻있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일부의 선교사들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재정 상황에서 사역과 삶을 살아가는다면 많은 선교사들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에조차 쪼들리는 경우가 있다. 특히 국제적 선교단체에 속한 선교사와 한국 선교단체에 속한 선교사들은 기본 선교비의 모금액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모금액을 모금하기 때문에 선교사의 노후대책이나 근속기간에 더 좋은 돌봄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한국선교사에 비해 열악한 비서구권의 선교사들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미주 한인교회에서조차 국제단체 소속의 선교사들은 모금을 하기가 더 용이하고, 한인단체에 속한 선교사들은 모금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다. 교회들은 이런 사정을 알고 선교사들의 기본적인 생활과 사역비용 그리고 은퇴 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요즘 젊은 세대의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 가운데

는 교회는 선교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개인들을 발굴하고 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성도들 가운데는 보람 있고, 신뢰할 만한 일을 위해 재정적인 헌신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교회가 자신들의 자발적인 헌신의 기회를 잘 안내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교회의 안의 프로그램에만 헌신을 요구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한다. 그러다가 아주 감동적이거나 선동적인 사람을 만나면 교회와 상의 없이 큰 재정을 내어놓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리고 나서 후에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으로 상담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일들은 헌금자가 선한 의도지만 충동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미숙한 결정을 내린 경우가 많기도 하지만, 개인들이 적절하게 교회와 상의할 수 없는 환경에 만든 교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교회는 언제라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를 알리고, 지역교회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안에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미주 한인교회에서는 헌신적인 마음을 가진 개인들이 힘을 합쳐 선교사 은퇴 후 주택 프로그램과 같은 일을 연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선교를 위해 큰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가운데 재정적인 여유가 많은 사람들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뜻있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선교대회에 참석할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어느 권사님은 무명으로 큰 돈을 내놓았다. 따님의 의료직을 위해 특별히 모은 자금이라 하셨다. 그런데 선교대회에 참석할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기꺼이 내어놓으신 것이다. 담임목사님은 권사님께서 그렇게 큰 금액을 내실 만한 환경이 아니라고 하셨다. 그러나 무명으로 내놓으신 것은 주님 앞에서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분명하다. 또 내가 아는 젊은이들도 헌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은 집이 없이 렌트 아파트에 살면서도 상당한 금액을 선교를 위해 해마다 드리는 젊은이, 자신을 위해서는 100달러를 아끼면서도 선교를 위해서 해마다 60,000달러 이상을 기쁨으로 드리는 젊은이들이 있다. 이런 물질의 나눔이 선교의 동역을 아름답게 한다. 바울 사도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고 말하며 "헌신적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을 알기에" 크게 기뻐한다고 하였다. 비천에도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우게 하시고,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빌 4:19)는 말씀이 물질의 나눔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확신으로 다가오는 깨달음이 되기를 바란다.

dr.yongcho@gmail.com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33 헤롯 가문을 소개합니다 5 헤롯 아그립바1

사도행전 12장은 교회의 위기를 전합니다. 헤롯 아그립바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합니다. 첫 대상을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야고보의 순교를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행 12:3) 힘을 얻는 아그립바1세는 베드로를 체포하여 감옥에 투옥시킵니다. 이 위기 상황에 교회는 더욱 기도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한편 12장 후반부는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 아그립바1세의 죽음과 하나님 말씀이 흥왕함을 소개합니다.

성경은 아그립바1세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헤롯이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도 이것은 신의 소리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기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행 12:21-23).' 누가는 헤롯의 죽음의 이유를

헤롯의 교만으로 설명합니다. 한편 요세푸스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아그립바1세가 할아버지 헤롯이 만든 가이사라극장에서 자신의 위엄을 과시함을 설명합니다. 로마 황실의

든든한 지원을 받던 헤롯 아그립바1세는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하면서 유대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자 그는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는 가이사라극장에 금과 은으로 치장한 화려한 왕복을 입고 백성들의 환호를 유도하다가 급성 복통을 호소하였고 5일 후 사망했다고 합니다. 현대 의학은 그가 맹장이 터져 복막염으로 사망했다고 진단합니다.

헤롯 아그립바1세의 아버지

는 헤롯대왕이 한때 후계자로 내정했던 아리스토틔로스입니다. 헤롯이 아리스토틔로스를 처형하자 남편의 죽음을 본 베니게가 아들과 함께 로마로 피신합니다. 베니게(혹

베르니게:Bernice)는 당시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동생 드루수스의 아내 소 안토니아(Antonia)와 가까이 교제하며 아들을 로마 황실의 자제들과 함께 성장하게 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은 아그립바1세는 여러 비행으로 인생을 망칩니다. 어머니 사후에 빛 독촉에 시달리는 신세가 되어 유대로 귀환하는데 너무 어려워 자살을 결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아내가 그의 누나인 헤로디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헤로디아의 남편 헤롯 안디바는 조카이자 처남인 아그립바1세를 디베라 재정 장관으로 임명해 놓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아그립바1세는 누나 헤로디아와 매형 안디바의 조롱과 멸시를 견디지 못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아그립바1세의 활동을 부러워하였던 매형이자 삼촌이었던 안디바는 헤롯 아그립바1세의 실수를 빌미 삼아 아그립바를 쫓아냅니다. 헤롯 안디바를 떠나 수리아에 잠시 머물렀던 아그립바1세는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는 로마에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갖지 않은 빛이 있어 투옥 위기에 처하자 티베

와 인맥을 쌓았고 두 황제가 등극할 때 공신이 됩니다. 아그립바1세는 티베리우스 사후에 가이우스 칼리굴라를 위기에 구하려다 감옥에 6개월간 투옥됩니다. 마침내 칼리굴라가 로마 황제에 등극하자, 황제로서 첫 결정을 자신을 위해 감옥까지 갔었던 아그립바를 유대 왕으로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3대 황제인 칼리굴라가 사망했을 때 아그립바1세는 동갑의 친구 클라우디우스와 원로원을 중재합니다. 다리 불구로 말더듬이었던 클라우디우스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원로원을 아그립바1세가 적극적으로 설득합니다. 아그립바1세의 결정적 도움으로 로마 4대 황제에 등극한 클라

우디우스는 아그립바1세를 적극적 지원을 하여 헤롯 대왕이 지배했던 땅 전체를 차지하게 함으로 명실상부한 유대 왕으로 자리 세웁니다.

헤롯 아그립바1세는 헤롯 가문 왕들 중에 가장 스페이 좋은 왕입니다. 그는 하스몬가의 피를 가진 왕입니다. 그의 할머니가 하스몬 왕족 출신인 마리암네였습니다. 그는 또 로마에서 교육받은 엘리트였습

니다. 나아가 로마 황제들과 좋은 관계를 가진 인맥 부자였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유대인의 문화와 전통 존중하는 정책을 펴면서 '나사렛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 칙령의 피해자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로마에 거주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추방을 당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때 추방되어 고린도로 이주합니다.

아그립바1세는 이런 클라우디우스 황제 정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야고보 순교나 베드로 투옥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나사렛 칙령'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아그립바1세 행위입니다. 성경 문화와 회당의 전통을 지지하는 아그립바1세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습

니다. 로마 황실의 적극적 후원과 유대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아 한껏 힘을 얻은 아그립바1세는 의 교만이 가이사라극장 연설과 신격화로 나타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행12:22-23)'. 유대왕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던 헤롯 아그립바 1세는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 시킨 그는 교만의 끝에서 죽고 맙니다.

chap1207@hotmail.com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하나님의 심판 방법 (계11:1-3) 찬 455장

첫째,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십니다. (1) 지팡이 같은 갈대는 심판의 도구로서 위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둘째, 이방인의 때를 하락하십니다. (2) 성전 밖의 이방인에게 회개 기회를 주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그때를 마흔두달 (1,280일)로 말함은 신약시대, 곧 종말 시대를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속에 포함된 은혜의 시대에 삽니다. (고후 6:2) 이른 구원의 날이 지난 후에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없는

채 긴장을 가진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셋째, 두 증인의 사역 (3), 이때 하나님은 두 증인과 두 촛대로 비유된 교회의 예언 선포 곧 복음 전도 운동을 예고합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선 자의 영적 긴장으로 이 일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정결케 하는 심판과 함께 일어나는 복음 증거의 사역에 동참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갑시다.

화 교회의 증거 운동 (계11:4-5) 찬 178장

이방인 때의 교회 사역은 어떤 증거 사역을 행할까? 이것은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행 1:8) 첫째, 두 증인인 교회(4), 왜 여기에 두 감람 나무, 두 촛대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나온 상징은 교회를 가리키며 둘은 법정의 기본 증거처럼 교회의 복음 증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용이란 것입니다. 둘째, 짙어 전도하게 하심도 모두 언약 증거의 확신을 가리킵니다. (4) 둘째, 핍박을 예상하는 교회, 교회는 증거 사역에 반드시 환난을 예상해

야 합니다.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해고자 합니다. 그런 핍박이 일어남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복음 전도는 고난을 통해 증거됩니다. 셋째, 능력을 입는 교회, 이런 난관에서도 하나님은 교회에 능력을 주심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5) 입에서 나오는 불은 성령과 말씀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복음 증인인 우리는 그 능력을 입기로 되어있습니다. 능력을 입을 때까지 사모하십시오.

수 교회의 능력의 범위 (계11:6-8) 찬 319장

복음 증인은 어떤 능력을 가집니까? 첫째, 자연을 움직이는 능력 (6) 엘리야처럼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일곱 번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진 것처럼 교회는 자연을 능가하는 능력을 가진자입니다. 이는 복음이 만물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초자연적 능력을 다스리는 능력 (7) 모세가 물을 피로 바꾸며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처럼 초자

연적 능력이 전도자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셋째, 적 그리스도를 이기는 능력 (7) 복음 증인은 무엇보다 적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이기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세력으로 일시 동안 죽음을까지 떨어 집니다. 이런 핍박과 고난은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때를 인내의 믿음으로 이깁니다. 이런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목 변칙 된 세상 (계11:9-11) 찬 474장

구속의 마침에는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지만 그 속에 주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첫째, 두 증인의 죽음이 일어납니다. (10) 복음을 지키기 위해 죽도록 충성한 증인, 교회는 적그리스도에게 죽임당하는 일이 생기기 세상은 더욱 기뻐합니다. 진리의 싸움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둘째,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1) 두 증인은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살아남으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남은 당연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셋째, 교회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11) 이 환란을 통과함으로 교회는 더욱 연단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권위를 행사하십시오.

금 둘째 화 (계11:12-14) 찬 412장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심판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첫째, 증인의 승천 (12) 주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힘입어 승천하는 교회는 구속의 완전한 승리의 증거자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절대 승리에 발을 두고 이 땅에 살아가는 승리자입니다. 둘째, 큰 지진으로 인한 참혹한 파괴가 일어납니다. (13) 구속의 승리를 누리는 교회의 활동무대인 이 세상에 온갖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

님이 친히 간섭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왕 노릇하게 되어있습니다. (계 5:10) 셋째, 연속되는 환란이 일어납니다. (14) 완성된 구속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이런 단계적인 환란을 사용하십니다. 현재 당하는 세상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손을 보기 위해 은혜를 받으며 두려움과 경건을 사모하십시오.

토 일곱째 나팔 (계11:15-17) 찬 270장

일곱인, 일곱 나팔로 이어진 구속의 마침으로 펼쳐지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첫째,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15)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상태 곧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친히 다스리고 그의 백성이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어느 기간 택한 성도가 그리스도와 다스리는 나라가 성취됩니다.

다. 둘째, 교회의 경배 (16-17) 그날에 교회는 하나님께 앞도려 경배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참다운 예배자가 왕노릇합니다. 셋째, 교회가 받을 상급 (18) 그때 교회는 주를 위해 수고한 모든 일에 약속된 상급을 받으나 구속의 감격으로 그 모든 면류관을 어 린양께 바칩니다. 그 완성된 구속을 바라보며 현재의 난관을 이기는 성도가 됩니다.

교회음악 이야기(17)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모차르트의 명성가 “영화롭도다”

한국의 음악 비평가 협회 회장을 지낸 김규현 작곡가께서 ‘한국의 70-80년대에 불려졌던 명성가 들은 합창지휘자들의 천덕꾸러기인가’라는 제목의 비평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에 의하면 요즘 교회에서 지휘자들이 선곡하여 불러지는 찬양들은 주로 미국산 대중 교회 합창곡들이 되어 현대 곡들에만 치우쳐 선곡을 하여 균형을 깨트리는데 그것은 지도자들이 교회음악의 정통성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교회음악과 예배음악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내용과 어떤 양식, 그리고 형태를 이루고 있는가 등, 그 정통성과 본질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꼬집는 내용이었습니다. 필자는 그의 주장에 부분적으로 동의가 되며 중요한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통음악과 현대 음악의 시대적 구분보다는 균형 속에 바

1767-1835)가 작곡하여 모차르트에게 헌정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곡은 누가복음 2장 14절을 가지고 가사의 뼈대를 형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용으로 찬양들이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를 찬양하는 대표적 곡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지 이 찬양을 기억하며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노진준 목사님은 “오늘날은 진리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탈 진실 시대가 되어서 모든 것을 상대화 시킴으로 개인화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시대”라고 정의하는 말에 동의가 됩니다.

이러한 이론을 부추기는 요소들 가운데 20세기 초에 나타났던 다다이즘(Dadaism)이라

찬양들이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를 찬양

른 예배음악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음악에 있어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것은 가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사 43:21)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즉 모든 교회음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직, 간접적으로 표현한 가사 그리고 그것을 돕는 음악이 있는지 잘 구분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 6:9. ...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마 6:13’) 이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신약의 서신서에서 기독교(Christology)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종결 부분인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라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며 종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최종 목적이었음을 이야기 합니다.

는 하나의 철학적 입장에서 표현된 사조를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난해한 표현들을 사용해서 현존하는 모든 미적, 사회적 가치를 부인하는 20세기 초반에 유행했던 아방 가드(Avant-garde) 운동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에 의해 원래의 가치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사용하는 모든 그럴듯한 단어들 사실은 아무 의미 없음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코비드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혼란스러운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개인화를 부추기며 의숙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찬양해야 하는지 애매해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즉 복음의 절대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사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한 지사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확실한 진리를 가슴에 담고 이 복음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수적인 기초는 “그분께서 오직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원초적 고백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삶에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고백이 당연시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불려지는 명성가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곡 중 하나는 모차르트(W. A. Mozart 1756-1791)의 “영화 롭도다 (Gloria in Excelsis Deo)”입니다. 이 곡은 한국 교회 내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곡으로 많이 불려집니다. 이 곡의 작곡가는 모차르트로 알려지고 있지만, 최초 출판사의 실수라는 의견도 있으며 혹은 오스트리아의 벤첸 뮐러(Wenzel Muller,

이것을 붙들고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매일매일 갱신하며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행동하는 것이지 반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iyoon@wmu.edu



2022년

성경 암송 대회



최우수상: 상금 \$1000과 메달 및 상장
한국어부(영어부 동일)

- ▶ 1등상: \$500
- ▶ 2등상: \$300
- ▶ 3등상: \$150
- ▶ 장려상: 0명 - 상품
- ▶ 최연소상과 최고령상: 상품 및 상장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인간 언어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는 일이며 기도 생활을 더 확고하게 해 줍니다.

성경을 많이 자주 암송 할수록 바로 내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확신 있게 서 있을 수 있는 성경 암송 대회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권합니다.

- 일시** 2022년 10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
- 장소** 미정(추후 발표)
- 참가 자격** 한어부 - 미국 내 한인 교회(EM 포함) 및 한인 기독교 단체 소속(연령 제한 없음)
영어부 - 미국 내 한인 교회(EM 포함) 및 한인 기독교 단체 소속 재학생 (초등학교 - 대학원)
- 암송 성경책** 1. 한국어 성경: 개역, 개역 개정, 새번역 중
2. 영어 성경: NIV, KJV(or NKJV) 중 택일
- 신청서 제출처** The Lord's Table Mission USA (주소: 35-14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 신청서와 암송 범위는 연락 주시면 곧바로 이메일, 카톡, 메세지,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참가비** \$30 (식사와 간식 및 사무비 - 7월 30일 이후 \$50)
- 신청 마감** 9월 10일 우편물까지
- 문의처** 주님의 식탁 선교회 (35-14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T. 347-559-3030, 718-886-3730, appa2God@gmail.com

공동주최: 주님의 식탁 선교회 중앙장의사 **주관: 하늘가족**

광고후원: 뉴욕교회협의회, 단비기독교TV, CTS뉴욕, KCBN 미주기독교방송, 국민일보 USA, 미주크리스찬, 복음뉴스, 아멘넷, 뉴욕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상품후원: 뉴욕교회 (회장: 김희복 목사), 뉴욕교회협의회 (김일태 이사장), 미주예장합동 (회장: 안재도 목사), 펠릭한인회 (오대석 목사)
행사후원: 뉴저지평화기도원 (김중철 원장), 뉴저지어순서 (대표: 김기) *후원 하실 분은 연락 주세요

신교 편지

필리핀

1. 한국 방문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년 반의 코로나 기간 중에도 저희 잡보양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필리핀의 많은 사립학교 중에 천여 개 이상의 학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는 주님의 은혜와 동역자분들의 기도로 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6월 4일에 한국에 일시적으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4년마다 2개월씩 안식년으로 한국 방문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3년 만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저희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집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선교부에서 25년 동안 적립하여준 퇴직금을 해지하고, 별도로 은행 대출을 받아 아이들 집을 알아보려고 나온 것입니다. 학기 중에는 기숙사에서 머물 수 있지만 방학에는 기숙사를 나가야 하며 갈 곳도 없기 때문이며, 저희 선교지는 두 아들이 태어나고 성장할 고향이지만 한국 외교부의 허락이 없는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집을 구함

주택이 다니는 홍익대학을 기준으로 가깝고 집 시세가 저렴한 곳인 등촌동, 목동, 화곡동을 중심으로 여러 날 동안 걸어 다니며 부동산에 찾아가 물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금액으로는 반 지하 집 말고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기도하며 계속해서 돌아다녔지만 대부분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고층이거나 반 지하였습니다. 주택이 한국 생활을 하는 중에 적응이 안되어 힘들면 중간 중간에 저나 공선교사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면 방이 두 개가 필요하여 집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무릎이 많이 불편한 공선교사에게 4층짜리 집은 무리가 되기에 계속해서 찾고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저희 형편에 맞는 1층짜리 집을 찾아 제가 사진을 찍고 오후에 공선교사와 함께 가서 계약하려 하



었는데, 방금 전에 어느 분이 20만원을 주인에게 주고 갔다고 말하며 며칠 더 기다려 보자고 부동산 여사장이 말하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계약 하겠다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주인이 20만원을 다른 부동산에 돌려주고 저희가 그 집을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를 도와준 부동산 여사장이 교인인데 저희가 그 집을 계약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등촌동 집은 제가 여러 날 동안 다닌 집 중에 제일 가격이 낮았으며 흥대에서 가깝고 주변 교통도 좋고 재래시장도 있어 최고의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의 형편을 아시고 좋은 집을 예비해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3. 운전 면허증 갱신

한국에 올 때마다 차가 없어 불편하였지만 그러니 하고 지내다가 선교지로 돌아왔습니다. 갈수록 공선교사의 무릎이 불편하고 선교사 안식관이 연희동 언덕에 있어 공선교사가 내려갈 때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운전면허에 대해 알아보려고 여러 날 생각하다가 강서면허시험장과 경찰민원 센터에 여러 번 전화를 해 보니 저의 운전면허증이 말소되지 않았고 연기로 되어 있어 강서면허시험장과 강서구 경찰서를 오고 간 뒤에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1992년 10월 31일에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30년 만에 새로 갱신이 되어 꿈만 같았습니다.

4. 대면 수업 준비

8월에 있을 대면 수업 준비로 학교에서 분주하였는데 드디어 준비를 다했습니다. 교무실을 과학실로 대체하였고, 양호실 보수, 학교 지붕 위에 학교 이름

도 눈에 보이게끔 잘 만들었습니다. 악기 방은 공간이 너무 적어 조금 불편하지만 제법 깨끗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5. 졸업식

5월 27일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졸업식을 하였습니다. 작년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졸업생들 기념사진만 찍었는데, 올해는 학부모들 중에 한 명씩만 초대하여 학생들과 함께 조촐하게 졸업식을 하였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2년 넘게 학생들끼리 만나지 못하다 보니 유치원 학생들은 졸업식 날 학교에서 처음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 서로의 이름을 물어보는 진풍경이 있었습니다.

6. 선교지 마스크 나눠줌

코로나로 인하여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자 마스크를 사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늘었고 도둑도 많이 늘어나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초기에는 선교지로 마스크를 보낼 수 없었으나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마스크를 보내줄 수 있게 되어 현지 교회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부수간 교회 100장, 말라얄 교회 1,000장, 꼬마티 교회 200장, 시부꾸 교회 150장, 라부안 경찰서 300장)

7. 준탁이 한국 적응

외진 선교지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MK(선교사 자녀)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년에 준탁이는 한국에 가기 전에 흑시 몰라서 필리핀의 UST대학교 라살 대학에 합격하여 등록금을 한 학기 내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16면으로 계속)

가정 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58. 성경적 결혼의 목표

결혼의 목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은 가장 귀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창 2:24, 마 19:5)고 하신 말씀에서, ‘떠남-연합-한 몸’이라는 공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혼의 목표를 ‘연합’에 집약시킬 수 있습니다. 연합이란 말의 히브리어 뜻은 ‘아교플로 붙인다’는 것으로, 총체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결혼을 통하여 연합해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고 중요하다는 진리를 주장하라.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받고있는 가치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3) 배우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라. 많은 사람은 배우자가 자신을 위해 귀하고 좋은 것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제 방향을 바꾸어 배우자의 필요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 섬김의 도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3) 하나님이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나를 선택하셨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배우자를 섬기도록, 나를 섬김의 도구로 활용하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3. 육체적 연합

성경적 결혼의 원리는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혼생활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대화를 통한 커뮤니케이션과 성 문제입니다. 육체적 연합이란 흥미를 좇는 성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만남입니다. 로렌스 J.

- 1. 영적 연합: 결혼에 있어서 인격적 신체적 필요보다 더 중요하고
- 2. 정신적 연합: 정신적 연합은 자신이 기여해야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결혼생활에서 상대방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영적 축복

시급한 것은 영적 연합입니다. 영적 연합은 부부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통로로, 말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체험할 때 가능하며, 하나님의 사랑 역사를 통해서 배우자를 서로 사랑할 때 나타납니다. 로렌스 J. 크랩(Lawrence J. Crabb)은 <The Marriage Builder>에서 영적 연합의 세 단계를 권하고 있습니다. (1) 당신의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라. 우리의 감정을 숨기고 덮어놓기보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를 받았으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2)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

받겠다는 피차간 이성적으로 거리낌이 없는 관계에서 나오며, 섬김의 원리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결혼생활에서 상대방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영적 축복입니다. 로렌스 J. 크랩은 정신적 연합을 파괴하는 장애요소를 극복할 세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 섬기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섬김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 선택이며, 자신의 죄를 고백, 회개하며, 섬김의 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신앙적 결단이 요청됩니다. (2) 배우자의 필요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자신의 필요를 목표로 하

크랩은 육체적 연합을 네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1) 주님으로부터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하고, 상대방의 필요들을 채워주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린 부부가 나누는 성적 쾌락입니다. (2) 배우자에게 육체적 영역에서 최대한 쾌락을 주겠다고 하는 섬김에의 헌신으로부터 나오는 성적 쾌락입니다. (3) 감정적 흥분과 성적 만족의 경험을 서로에게 충분히 나누어주는 성적 쾌락입니다. (4) 부부 각자에게 그들의 꿀을 수 없는 근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성적 쾌락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NYU Langone Health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패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패밀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 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 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패밀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리자베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

뉴저지 중부 지역에 위치한 에리자베스 한인교회는 47년의 역사를 통해 복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서 열린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새롭게 이끄실 5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요건

- 정규 신학 대학원 졸업학사(Master of Divinity)
- 미국 장로교 (PCUSA) 혹은 개혁신교단 소속으로 PCUSA 가입이 가능하신 분
- 담임목사 혹은 부목사로 5년 이상 시무하신 분

제출마감 및 연락처

- 제출 마감 : 2022년 9월 18일까지
- 보내실 곳 : Korean Church of Elizabeth 69B Myrtle St. Cranford, NJ 07016
- E-mail : apply.kpce@gmail.com
- 전화번호 : 908-354-8488
- 문의 : 위의 e-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방법 : 우편이나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서류

- 이력서 (PCUSA Form PIF에 의한 이력서 또는 자필 이력서)
- 자기 소개서 한글 및 영어로 작성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목사 안수 증명서 사본
- 추천서 (2인 이상, 최소한 목사 1인 이상 추천)
- 최근 설교 동영상 link 또는 file e-mail 로 첨부
- 가족 소개서 (가족 사진 포함)
- 신앙고백서 1부
- 목회 계획서 1부

◆ 참고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 ◆

에리자베스 한인교회 69B Myrtle St. Cranford, New Jersey 07016

인/터/뷰

버지니아제일침례교회 김제이 목사

남침례교단총회 ... 청소년들과 함께한 PK사역 33년 굿바이!

'PK의 아버지'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버지니아 제일침례교회 김제이 목사. 지난 33년 동안 청소년들을 위해 집회와 세미나를 인도해 오며 그들과 함께 웃고 울었다.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청년 같은 열정과 모습이지만 아쉽

매년 총회 때마다 총회의 꽃 처럼 마지막 날을 장식했던 청소년 집회. 그 집회 중심에는 언제나 김제이 목사가 있었고,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고등부, 청년부까지 누구에게나 친구가 되었던 그가 올 총회 청소년 집회를 마지막으로 손을 놓았다. 이 사실에 대해 김제이 목사는 "사역자가 사역을 그만둔다는 것은 없다. 다만 새로운 운영진이 선출됨에 따라 새로운 운영진에 맞춰진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한걸음 뒤로 물러선 것"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워싱턴에서 목회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PK 수양회를 개최하여 동부지역 대학 탐방 및 타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고 싶다"고 새로운 비전을 소개했다.

■ 총회 회의장 밖에 있는 목회자 자녀들의 친구로 시작된 사역

그가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신학생 때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그 때를 회상하며 말을 이어갔다. "총회를 처음 가본 것은 신학생 때였습니다. 1985년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교수님과 함께 달라스 총회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미국 총회 및 한국 총회에 참석 하면서 사역에 대한 정보와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도 아니고 교회에서 성장하지도 않았기에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총회와 선다 스쿨 본부 행사 때면 빠짐없이 참석해서 배우고자 노력했으며 이후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회자의 자격으로 총회에 참석하게 된 것은 1989년 라스베가스 총회였습니다. 담임목회자 자격으로 총회에 참석했지만, 아는 목사님도 없었고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들께서 참석하셨는데 서로 다른 의견으로 대화가 통돌되는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왔지요. 그런데 그때 총회 회의장 밖에서 배회하고 있는 목회자 자녀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PK들은 여느 청소년들이 겪는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문화적 갈등 위에 부모님들로부터 받는 중압감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커. 끊임없는 관심 갖고 대화와 상담 이어가야"

둘 수 없었기에 그 아이들을 불러 모아 함께 대화하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다음 해인 1991년 애틀랜타 총회 당시 미국 총회에서는 'Afterglow'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그 프로그램은 Evangelist를 위한 모임으로 매년 총회가 시작되는 월요일 저녁에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내에서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들 및 부흥사들을 포함하여 약 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모임인데 그곳에 초청되어 한 인으로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 청소년 찬양팀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런 큰 모임에 가서 찬

양하겠다는 용기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인 총회로 다시 와서 아이들과 처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오늘 날까지 이어진 PK 모임이 되었습니다"라고 들려준다.

■ PK들은 여느 청소년들이 겪는 갈등보다 더 큰 중압감 가져

김제이 목사는 일반 청소년들과 PK의 차이점을 들려주며 PK들의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했다.

아이들은 거의 혼자, 혹은 딸아들이나 만팔이 부모 역할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해야 하고, 작은 교회의 목회자 자녀들은 월급 안 받는 풀타임 전도사 같이 살아야 합니다. 게다가 교회에서 어른들이 싸우거나, 아빠가 교회에서 쫓겨났다면, 교인들에게 먹살을 잡혔다면 하는 일들을 경험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이들에게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이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서 좋지 않은 영향력으로 남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 심리학 전공자의 눈으로 본 PK들의 심리

긴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다며 들려주는 이야기는 듣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어느 날 총회를 갔다 왔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를 쫓아내려고 교회 자물쇠를 바꿔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교회도 못 들어가고 자동차에서 몇 주를 보냈다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초등학교 때 17번 이상을 해서 친구가 없는 아이도 있었으며, 아빠에게 험한 말과 욕설을 하고 먹살을 잡았던 교인이 자기에게 미소를



총회 PK 세미나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찬양하는 김제이 목사

지으며 "잘 지내니?"라고 물어봤었다는 아이, 자살을 시도했으나 엄마 아빠는 모른다라는 아이, 아빠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 악마라는 아이, 생리통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다음날 SAT 보는 날인데도 아빠가 교회에 와서 반주하라고 해서 그다음 날 SAT를 안 봤다는 아이, 엄마 아빠는 매일 심방으로 바쁘다 보니 중학교 다니는 언니와 생활 하고 있는데 엄마-아빠보다 언니가 미워서 언니를

관점을 바꾸셔야 해요. 보통 일상생활 하듯 규칙적인 시간을 유지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취미생활을 만드는 것 등이 코로나 블루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물론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권한다. 인터뷰 중에도 주위에 청소년들과의 눈 맞춤을 멈추지 않는 김제이 목사는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한 가정의 엄마 아빠가 되었을 모든 PK들이 본인들의 어렸을 때를 생각해서 PK 모임에 와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PK 그룹이 EM 사역과 달랐다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한다. 또한 "EM 사역이라는 울타리 아래 성인을 위한 EM 사역, 청소년 사역을 위한 YM, 어린이를 위한 CM 사역 등이 있는데 이 구별이 없이 영아권의 모든 사역을 EM 사역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도울 수 있다"며 "청소년들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상담을 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죽이고 싶었다는 아이... 너무 많아 일일이 헤아릴 수가 없다"고 말한다.

■ 코로나 블루를 겪는 이들, 생각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 최선

그는 "그들에게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우리를 작게 만들고 두려움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것이죠. 목회자님들에게 보다는 일반적으로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으신 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뉴스 집중을 멈추세요. 현 상황에 맞게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서 적용해보시며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나도 견딜 수 있어'라고 생각의

하도록
4. 선교지의 학교와 집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도록(경계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도둑이 많아짐)
5.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생활할 때 영육 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복음의 나팔수 오정원 / 공운자 선교사 (기도편지 81호 2022년 6월 30일)

선교편지

(15면에서 계속)

혹시나 한국의 대학에서 모두 불합격할 경우를 대비한 것인데 다행히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한국의 6개 대학에 모두 합격하였고 지금은 홍익대학교 미대(시각디자인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전에 저희 부부의 기도제목은 "준탁이가 한 학기만이라도 잘 적응하며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준탁이가 좋은 성적으로 1학기를 잘 마쳤고, 지금은 여름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8. 저희 가정

현탁이는 지난 2월에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여 지금 경희대 3학년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2월에 제대하면서 대학교 기숙사에 신청을 못하여 지금은 온 가족이 연희동 안식관에 함께 모여 살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한국에 나오기 전에 우선권이 퇴직금 정리, 집 구하는 일

이라 선교 보고할 교회를 선정하지 못하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일찍 우선적인 일을 빨리 마칠 수 있게 되어 요즘에는 시간이 되는 대로 지인들을 만나고, 선교보고하기 위해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머물 집에 살림살이 도구들을 채워 놓고 8월 중순에 선교지로 돌

아갈 예정입니다.

기도 제목

1.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 운영이 어려운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2. 8월에 있을 대면 수업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3. 현탁이와 준탁이가 한국에서 대학교 생활과 신앙생활 잘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탁월함을 추구하는 신학교

www.rptseast.org

BETWEEN MISSIO SEMINARY (FORMERLY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 AND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미시오신학교(구. 비블리칼 신학교)와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MOU 체결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기 그 귀한 소명자를 훈련시키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신학과 이민목회 현장에 겸비한 교수진, 세계의 복음 현장을 누비는 자랑스런 동문,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재학생, 그리고 따뜻한 교직원들이 함께 기다립니다.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 아시아 신학연맹 (Asia Theological Association)의 준회원입니다.

특 전

1.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2.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 (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심사 후 Scholarship을 지급함)
3.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토기장이 북카페(도서관)'가 있음
4. 목회학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5. 졸업생은 원할 경우에 2년 인턴과정 후, 심사를 거쳐 개척교회 지원함
6.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신학과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대학부	신학사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		3년	
신학교 부설 평생도 여학원, 신학원			세례교인
목회학석사(M.Div)		3년	
기독교교육석사(M.R.E)		2년	대졸및동등학력자
선교학석사(M.Miss)		2년	
신학석사(Th.M)(설교학)		2년	M.Div학위 학력자

2022학년도 가을학기 입학안내(주·야간)

제 출 서 류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부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4. 신앙고백서 1부
5. 명함판 사진 2매
6. 입학 전형료 (\$30)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접수마감: 2022년 9월2일(금) 오후6시
원서교부처: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입학시험: 2022년 9월3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2시
개강부흥회: 2022년 9월6일(화) - 9월8일(목) 저녁8시
문의처: Admission Office
143-17 Flanklin Ave. Flushing, NY 11355
학감 정기태 목사: 917-733-7387
사무실: 718-463-7163 / www.rptseast.org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